제1부 역 사

Ⅰ. 연 혁

1. 사적고찰(史的考察)

1) 광주는 옛부터 경기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땅이 넓은 고을이라는 뜻에서 한자로 넓을광(廣)을 썼다고 한다.

한강은 중부조선을 횡으로 관류(貫流)하는 대하인 만큼 옛날 우리민족이 남북으로 갈려 있을 때 패권(霸權)을 다투던 곳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한강유역을 점거한 나라는 번성하고 빼앗긴 나라는 쇠퇴하였다.

이와같이 한강은 고래(古來) 제국의 세력소장과 지대한 관계를 가졌다.

2) 한국역사의 하나의 특징으로 북쪽 지대에서의 전란으로 인하여 유민(流民)이라는 형태로 민족이 계속 이동해온 사실을 들수 있는데 선사시대는 몰라도 이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최초의 현상은 기자왕조의 마지막 군왕인 준왕(準王)이 위만(衛滿)에게 쫓기어 남하하여 이곳에 정착하였는데 그가 한왕(韓王)이되어 세운 회안국(淮安國)이니 지금의 경안일대이며 대체로 이지역에 위치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후 회안국(淮安國)을 토대로 하여 백제가 일어났다.

3) 백제 시조 온조왕이 국도(國都)를 하북 위례성에 정하였다가,

동왕 13년(기원전 6년)에 신하들과 더불어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생각하며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던중 한수를 건너 지금의 몽촌토성부근 평지에 궁궐을 짓고 백성들을 옮겨 살게하는 한편 목책을 세워 도성의 모습을 갖추고서 하남위례성이라 이름하였다.

이때 나라이름도 종래의 십제(十濟)에서 백제로 개칭하였다.

백제시조 온조왕은 주몽왕의 둘째 아들로서 온조이고 큰아들은 비류(沸流)이다.

※ 회안국(淮安國)은 지금의 경안이라는 설이 있으며 경안천 큰 다리 (구교)의 이름도 회안교(淮安橋)라고 했다.

4) 백제 근초고왕 26년 (371)에 도성을 한산으로 옮겼다.

백제가 처음엔 약하여서 적을 피하여 남으로 건너갔지만 그 지경(地境)을 점차 넓히고 병력 또한 강하여서 오히려 동으로 신라를 침범하고 북으로 고구려를 괴롭히기에 족하게 됨으로 도성을 하남위례성에서 북쪽 한양으로 옮아 온것 같다.

그래서 한수를 건너 그 북쪽에 웅거해 사방 국가를 호령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고구려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다시 한강이남으로 후퇴하여 남한산에 도읍을 정하니 지금의 광주군 서부면 춘궁리 일대가 그 지역으로 추측된다.

지금도 이 지역을 고읍(古邑) 즉 "고고을" 또는 "고골"이라 부른다. 이곳을 중심으로 백제는 그 세력이 크게 뻗쳤다.

5) 그후 백제 개로왕(蓋鹵王) 21년(475)에 북쪽 고구려의 남하로 도읍을 문추왕이 충남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천도함에 광주군 일대는 고구려(60여년간) 땅이 되었다.

백제 성왕(聖王) 29년(551) 6개군을 회복하였으나 불과 2년 후에는 신라 진흥왕에 다시 빼앗겨 신라의 땅이 되었다. 신라 문무왕 3

년(663)에 한산주로 명칭이 바뀌고 동왕 8년에 남한산주로, 신라 경덕왕 15년(756)에 한주라 칭하였고 지금의 광주란 지명이 확정된 것은 고려 태조 23년(940)부터이다.

백제의 도성(都城)변천 과정과 그 위치

초도지(初都地)	온조왕(즉위년)	하북위례성	중랑천유역
천도지(遷都地)	온조왕 14년	하남위례성(한산하)	몽촌토성
이도지(移都地)	근초고왕 26년	한 산	이성산성
재이도지(再移都地)	진사아신왕대	한 산	몽촌토성

2. 연 혁(沿革)

1) 고려사리지(高麗史理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등에 의하면 백제 시조 온조왕이 동13년(B.C 6년)에 국도(國都)를 위례성(慰禮城;현 한강북방)으로부터 한산하(漢山下) 한성(漢城;현 광주군 서부면 춘궁리 일대)으로 도읍을 옮겨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라 불렀으며 376년이 지난 근초고왕(近肖古王)25년(서기 370년)까지 백제의 도읍지였다.

그후 신라 문무왕 3년(AD 663)에 한산주(漢山州)라 고치였고 동 8년에는 다시 남한산주라 고치였으며 고려태조 23년(940)에 지금의 명칭인 광주로 개칭되었다.

성종2년(983)에 처음으로 12주에 목(牧)을 두었는데 그중의 하나로 광주목이 되었고 동14년(995년)에 12절도사(節度使)를 둘때에 광주를 봉국군 절도사로 고치어 관문도(關門道)에 소속시켰다.

현종3년 절도사를 폐하여 안무사(安撫使)를 삼았고 동9년 12목을 줄여 8목으로 고칠 때에도 광주군은 그대로 남았다.

그뒤 이조 세조때 광주에 진(鎭)을 두어 광주목 진관소속(鎭管所

屬)으로 목이 한고을이니 여주가 있고 도호부가 하나로서 이천이 있었고 군이 하나로서 양근(楊根)이 있었고 현이 지평, 음죽, 양지, 죽산, 과천의 5현(縣)이 있었다.

2) 명종 14년(1505)에 방어사(防禦使)를 겸하였고 선조6년(1573)에 토포사(討捕使)를 겸하고 동10년(1577)에 부(府)로 승격되어 수어사를 겸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당시 방리(坊里)로는 경안도 제방역(慶安道 祭訪驛)을 두었던 경안면, 오포면, 도척면, 실촌면, 초월면, 퇴촌면, 초부면, 동부면, 서부면, 구천면, 중대면, 세촌면,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 언주면, 왕륜면, 일용면, 월곡면, 북방면, 송동면, 성곶면, 의곡면의 23개면이 있었다고 한다.

인조원년(1623)에 유수제를 실시하였으며 인조4년(1626)년에 남한산성을 쌓고 주치(州治)를 성내로 옮기었고 동8년(1630)에는 광주부윤으로 되었다.

인조14년(1636)에 청나라가 침입함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이어(移禦)하였었다. (병자호란)

1914년에는 의곡면, 왕륜면(儀谷面, 王倫面)을 떼어서 수원면에 붙이고 양평군 남종면이 편입되었다.(16면 183리)

1917년 12월에 중부면 산성리에 있던 군청을 광주면 경안리로 옮겼다.

1963년 1월 구천면, 중대면, 언주면과 대왕면의 일원리, 수서리, 자곡리, 표현리, 세곡리 등 5개리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으며(13개면 1개출장소) 1973년 3월 성남시가 신설되어 1973년 7월1일 중부면 일부(6개리)와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이 성남시에 편입되었다. (10개면)

1979년 5월 광주면이 광주읍으로 승격되었으며(1읍9면) 1981년 12월 동부면이 동부읍으로 승격되어 2읍 8면 106리(행정리수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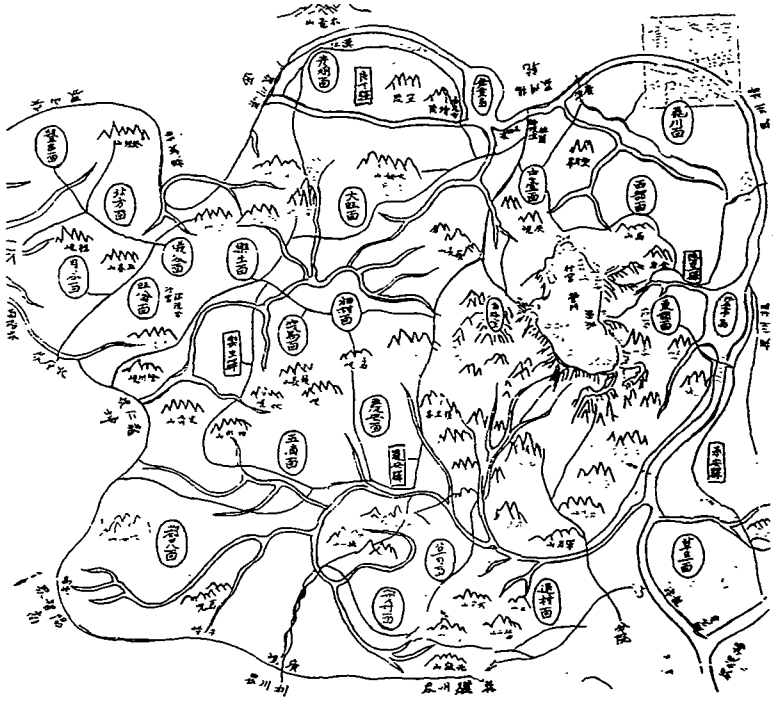
리)가 되었고, 1989년 1월 동부읍과 서부면 중부면의 상산곡리 지역이 하남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어 현재의 행정구역 1읍 7면 82리(행정리수 159리)가 되었다.

3. 광주군명의 변천

백제 온조왕 13년(B.C 6) 하남위례성 이래의 광주의 명칭을 대별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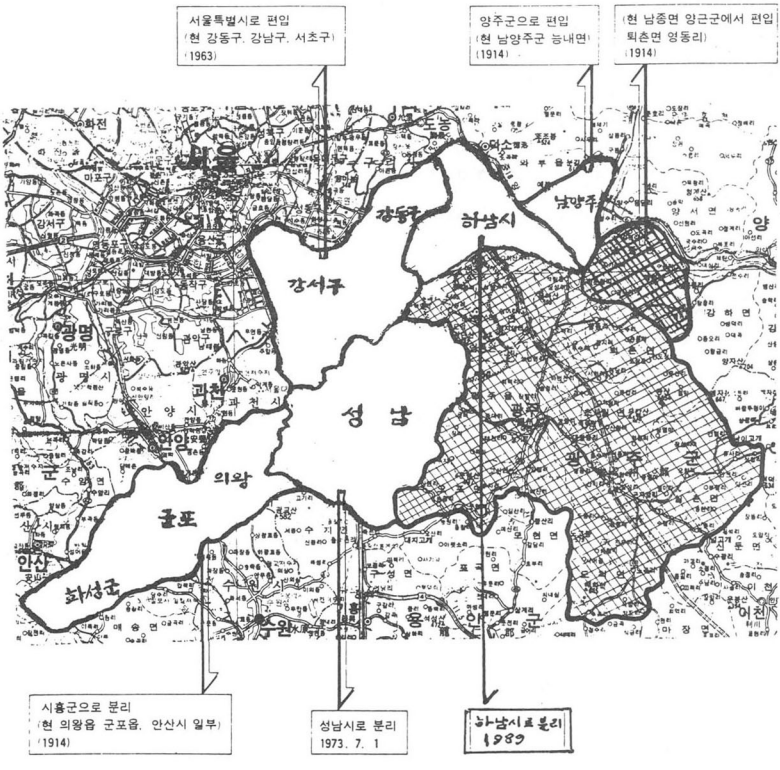
- 신라 문무왕 3년(서기 663년)에 한산주라 하였고
- 신라 문무왕 8년(668년)에 남한산주라 하였고
- 신라 경덕왕 15년(756년)에 한주라 하고
- 신라 태조 23년(940년)에 광주가 되었다.
- 고려 성종 2년(983년) 광주목(廣州牧)을 두었다.
- 조선조 선조 10년(1577년) 광주부를 두었다.
- 조선조 인조 원년(1623년) 광주유수가 되었다.
- 일제하(1906년) 광주 군수를 두었다.

廣州府邑誌(高宗 8년, 1871)



광주군 역사약도

(대동여지도 참고)
S : 1 : 200,000



※ 빨간선 부분도 과거에는 광주군

4. 지명유래(地名由來)

지명에는 어디에나 그 지명의 유래담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지명유래를 국문학에서는 지명연기설화(地名緣起說話)라고 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광주군내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1) 광주읍

① 경안리(京安里)

1910년 8월29일 면제(面制)를 실시할 때 경안리(慶安里)였으나, 1932년 7월 5일 경안면을 광주면으로 부르게 되었을 때 慶安里를 京安里로 개칭하게 되었다.

(1) 가골

조선조시대 현재의 경안리 5리 안골에 먼저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그 바깥쪽인 가장자리에 생긴 마을이라고해서 마을이름을 '가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 관말(官村)

일제시대에 관청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하여 이 마을을 '관마을'이라고 하였는데 요즘은 줄여서 '관말'이라고 한다.

(3) 파발막(把撥幕)

조선조 시대에 한양에서 여주·이천방면으로 가고, 또 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파발마들이 말을 갈아타는 파발막이 이곳에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② 회덕리(回德里)

제청(祭廳)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딴곳으로 살러 갔다가 고생만 하고는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와서 마음잡고 살다보니 생활이 점점 윤택해져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돌아와(回) 덕(德)을 입고 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회덕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1) 제청말(祭廳)

옛날에 이 마을 어느 집에 제사를 지내는 제청이 있었는데 제사를 다 지내고 탈상을 하여 제청(일명 상청)을 치우려고 하니 제청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후에 이 마을을 '제청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 두새오개

제청말에서 모개미(木峴里)로 넘어가는 고개와 오전리(梧田里)로 넘어가는 두 고개의 모양이 마치 두 마리 새가 날개를 편 듯하다고 해서 '두(二) 새(鳥) 고개(峴)'란 뜻의 '두새고개'라고 하였는데 1모음 아래서 ㄱ 이 탈락되어 '두새오개'가 되었다.

③ 장지리(墻枝里)

1910년부터 담안, 앞가지, 뒷가지 세마을을 합하여 장지리라 부르게 되었으니, 장내(墻內;담안)와 앞가지·뒷가지에서 한자씩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1) 담안(墻內)

주위에 있는 산이 마치 울타리처럼 둘려있다고 해서 '담안'(墻內)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 앞가지

장지리 1리에서 2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두 가지가 뻗쳐있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두가지 가운데 앞가지가 뻗쳐있는 방향의 마을이라고 해서 '앞가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3) 뒷가지

위에 있는 나무가지 가운데 뒷가지가 뻗쳐있는 쪽의 마을이라고 해서 '뒷가지'라 부르게 되었다.

(4) 절골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려시대에 장지리 3리에 절이 있어서 이곳을 '절골'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④ 송정리(松亭里)

지금 군청이 자리잡고 있는 뒷편으로 송림이 우거지고 왕손들 소유의 정자(亭子)가 여럿 있었다고 해서 1910년 행정 구역이 개편될 때 이곳을 '송정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 수하리(水下里)

경안리를 지나 흐르는 경안천과 탄벌리를 지나 흐르는 탄벌천의 어귀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물아래(水下) 마을(里)'이라 '수하리'라고 하였다.

(2) 밀목리(密木里)

이 마을 근방에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졌다'고 해서 '밀목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3) 통미

이 마을사람들은 예로부터 개수물통, 물통, 오줌통 같은 '통을 메워서 팔아다가' 생계를 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을이름을 '통미'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⑤ 목현리(木峴里)

조선조부터 이곳에는 감(柑)나무가 많아서 '감골'이라 부르던 곳인데, 1910년 리로 고치면서 '나무가 많고 고개가 많다'고 해서 이곳을 '목현리'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1) 모개미

원래 이름은 '목감리'(木柑里)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 모개미는 목(木)+감(柑)+里가 변하여 '목감리'에서 모감리〉모감이〉모가미가 된 것이다.

(2) 새오개

제청말에서 용생골로 가는 고개와 목현리로 가는 고개의 형태가 마치 새(鳥) 모양과 같다고 해서 새(鳥)+고개(峴)가 합쳐서 '새오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3) 용생골

이곳에 있는 샘(泉)에서 옛날에 용이 나와 하늘로 승천한 일이

있다고 해서 용(龍)+샘(泉)+골(谷)〉'용샘골'이라 했는데 이 말이 변하여 '용생골'이라 흔히 부르게 되었다.

⑥ 탄벌리(炭筏里)

한양에서 쓰는 숯(炭)을 굽는 마을에 탄동(炭洞)이라는 마을과 넓은 들을 끼고 있는 벌원(筏院)이라는 마을을 합쳐서 '탄벌리'라 부르게 되었다.

(1) 숯가마골

한양에서 양반님네들이 쓰는 연료인 숯을 굽는 가마가 있는 곳이라고 하여 이곳을 옛부터 '숯가마골'이라 불렀다.

(2) 벌원(筏院)

산밑으로 탄천(炭川)을 끼고 발달한 넓은 들판가에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으로 '벌원리'라 부르게 되었다.

(3) 사기막(沙器幕)골

조선조부터 이곳에서 사기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던 곳으로 이곳 마을이름도 '사기막골'이라 일컫게 되었다.

⑦ 태전리(胎田里)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의 태(胎)를 묻었다는 태봉산(胎峰山) 기슭에 형성된 마을인데, 이 곳에는 또한 화전(火田)이 많다고 해서 태봉(胎峰)과 화전의 뜻으로 '胎田里'라 부르게 되었다.

(1) 태봉(胎峰)

조선조 9대 성종의 태(胎)를 묻은 산이라 하여 이 산을 태봉산(胎峰山)이라 부르게 되었고 또 그 기슭에 발달한 부락을 '胎峰'이라 일컫게 되었다.

(2) 태외(胎外)·태바께

태봉마을 바깥쪽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태외(胎外)' 고유어로는 '태바께'라 부르게 된 마을이다.

(3) 옥동(獄洞)·옥텃골

조선조시대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옥사(獄舍)가 이곳에 있었다고

하여 옥동' 또는 '옥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4) 띠야골

이곳에는 어린 순을 '삘기'라고 하여 먹기도 하는 띠(茅)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 마을이름을 '띠야골', '띠임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⑧ 목리(木里)·나뭇골

오표면에서 1973년 행정구역 개편때 광주면으로 편입된 마을로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나무가 우거졌다고 해서 '나뭇골'이라 부르다가 한자로 '木里'라 부르게 되었다.

⑨ 삼리(三里)

내지곡(內地谷), 외지곡(外地谷), 소곡(小谷) 세 자연부락이 모여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이 마을을 '三里'라고 부르게 되었다.

(1) 내지곡(內地谷)

골짜기 안쪽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여 이곳을 '안골' 또는 '내지곡'이라 부르게 되었다.

(2) 외지곡(外地谷)

내지곡 마을이 생긴 이후 나중에 그 바깥쪽으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이를 '외지곡'이라 부르게 되었다.

(3) 요곡·작은골

조선조 인조때 예조판서를 지낸 경주 김씨란 분이 나라에 공을 세운 댓가로 남한산성에 딸린 땅을 포함한 골짜기 일부를 받았다고 하는데, '작은골'이라 하여 '요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⑩ 쌍령리(雙嶺里)

이 마을의 위치가 초월면과 경계에 있는 큰 고개(大嶺)와 초월면에 있는 작은 고개(小嶺)가 있는 근처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쌍령리'라고 한다.

(1) 최촌(崔村)말

조선시대 부터 이곳에 수원(水原) 최씨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았다고 해서 이곳을 '최촌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2) 김촌(金村)말

조선조 시대부터 안동(安東) 김씨가 집단을 이루어 이곳에 살게 되어 이곳을 '김촌말'이라 하게 되었는데, 현재도 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3) 주막(酒幕)거리

원래 이 곳에는 임진왜란 때 까지는 관에서 운영하던 쌍령원(雙嶺院)이 있던 곳이었으나 그 후에 술도 팔고 숙박도 할 수 있는 주막이 여럿 생겨나서 이 곳을 '주막거리' 또는 '파주말'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⑪ 중대리(中垈里)

이곳에는 고려 중기부터 광주 안씨가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던 '텃골'(垈里)과 '중말'(中洞)이라는 두 마을로 통합하여 '중대리'라 부르게 되었다.

(1) 중말

'중대리' 가운데에 위치하였다 하여 '중말' '가운뎃말'이라 부르고 있다.

(2) 텃골

옛날부터 집짓기에 알맞는 마을이라고 해서 '텃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⑫ 역리(驛里·역말)

고려시대부터 이곳은 역사(驛舍)가 있던 곳으로 오고가는 파발마들이 말을 갈아타던 곳이다. 따라서 마을이름도 '역마을' '역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⑬ 직리(直里·곧은골)

태봉산(胎峰山)에서 내려오는 곧게 뻗은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곧은골'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直洞·直里'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1) 새터

'곧은골'(直里)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후 사람이 늘어나자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새터'라 부르게 되었다.

2) 실촌면

① 곤지암(昆池岩)리

조선조 중기에 임진왜란 때 패전장인 신립(申砬)장군의 묘가 있었는데, 그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고양이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말을 타고 이 바위 앞을 지나가면 말굽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 장군이 그 앞을 지나다 '패전장군이 무슨 체면으로 지나는 행인을 괴롭히느냐'고 큰 소리를 쳤더니 갑자기 천둥번개를 치면서 바위가 두 쪽으로 나버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후부터는 고양이 모양의 바위가 없어졌다고 한다.

(1) 곤재(昆在)

곤지암리의 본동을 일컫는 말로 '곤지암이 있는(在) 곳'이란 뜻이다.

(2) 다석동(多石洞·대대미)

이곳에는 땅을 파보면 돌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석동'이라 하였는데 그후에 '대석'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파낸 돌로 담(墻)을 쌓았다고 해서 '대대미'라 부르기도 한다.

(3) 목방(墨防·먹방)

조선조 인조때 이괄(李活)이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이천쪽으로 도망가던 중 이곳 노상에서 잡혀 처형된 일이 있는데 '모반하는 검은 마음을 방지하였다'고 해서 '목방' 또는 '먹방'이라고도 한다.

② 수양리(水陽里)

자연부락인 구수동(九水洞)과 구양동(九陽洞)을 합하여 수양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1) 구양동(龜陽洞·갱이)

이 마을 양지 바른 곳에 거북이 모양의 큰 바위가 있다고 해서

'구양동'이라고 했으며, 고양이를 줄여서 '갱이'라고도 한다. 또 이곳을 '안구시울'이라고도 부른다.

(2) 복상(伏象)골

이 마을 형태가 마치 코끼리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복상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3) 돌문이

옛날 이곳에 돌을 쌓아 만든 큰 돌문이 있었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돌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4) 명신촌(明新村·어둠골)

마을이 높은 두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웃 사람들이 이 마을로 품앗이를 오면 일찍 해가 져서 어두워진다고 해서 '어둠골'이라 했는데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이 마을 사람들이 밝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명신동'이라 하게 되었다.

③ 이선리(二仙里)

이 마을에는 삼선당(三仙堂)이라는 당이 있었고, 또 양 골짜기에는 때때로 두 신선이 내려와서 놀다 갔다고 하여 '이선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④ 삼합리(三合里)

행정구역 당시에 국정포(國井浦), 야포(冶浦), 지음(智音)의 세 자연부락을 합하였다고 해서 '三合里'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 국정포(國井浦·국정개)

고려 말기 공민왕이 부하를 거느리고 이곳에 피신해 왔을 때 이곳의 샘물로 식수를 삼았다고 해서 '국정' 또는 '국정포'라 하게 되었다.

(2) 지음(智音·징골)

고려 말기에 이곳에 피신해온 공민왕이 매일 음주가무를 즐겨 징소리가 주위에 널리 퍼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징골'이라 하게 되었다는데 이는 '점골'이 변한 말로 보인다.

(3) 야포(冶浦·풀무개)

천덕봉으로 피신온 고려 군사들이 원나라와 싸울 때, 이곳에서 풀무질을 하여 무기를 만들었다고 하여, 이 마을을 '풀무개'라고 하였다고 한다.

⑤ 만선리(晩仙里)

이 마을에 살던 신선이 이원리에 있는 삼선당에 놀러갈 때 늘 늦었다고 하여 '만선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1) 만들

이선리에 있는 삼선당에 놀러갈 때는 늘 늦는(晩) 신선이 이곳에 살았다고 해서 '만들'이라 불렀다고 한다.

(2) 탑동(塔洞)

옛날에 이 마을에는 재앙이 자주 들어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재앙을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빌기 위하여 탑을 쌓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마을을 탑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⑥ 오향리(五香里)

이 부락의 위치가 풍수지리설로 보아 오향(午向)이라 불렀으며, 그 후에는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봉오리, 즉 감투봉, 멱자봉, 자주봉, 국수봉, 노적봉이 있어 이를 숭배하고 향기롭게 한다고 해서 '오향리'라 부르게 되었다.

⑦ 건업리(建業里)

조선조 광해군 때에 밀양(密陽) 박씨의 조상이 이곳에 와서 터를 잡고 살게 되었을 때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하여 돌탑을 쌓았다고 해서 '건업리'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91) 동심(東深)이

이 마을의 위치가 동쪽에 있는 깊은골에 위치하여 있다고 해서 '동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진고개

이 마을은 갈대가 우거진 데다가 땅이 유난히 질어서 보행을 하

기 힘들 정도여서 마을이름도 진고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⑧ 봉현리(鳳峴里)

이 마을 곁에 있는 봉재(鳳峴)라는 산이 있는데 행정구역을 개편할 당시 이 마을을 '봉현리'라 부르게 된 것이다.

(1) 설월리(雪月里)

이 마을은 산에 가리워진 음지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면 늦봄까지도 눈이 녹지 않는다고 해서 '설월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2) 새재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형태가 마치 새가 앉아 있는 듯하다고 해서 '새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⑨ 부항리(釜項里)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당시 부곡동(釜谷洞)과 우항동(牛項洞)을 통합하여 '부항동'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 부곡동(釜谷洞·가마울)

이 마을의 형태가 마치 가마솥처럼 속이 우묵하게 생겼다고 해서 '가마골'인데 ㄱ이 탈락하여 '가마울'이 되고 이것이 다시 줄어 '개말'이라고도 한다.

(2) 우항동(牛項洞·소목재)

이 마을의 형태가 마치 소가 목을 쭉 빼고 있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넘나다니는 고개가 바로 소의 목부분이라고 해서 '소목재'라고 하게 되었으며 한자로는 '牛項洞'이라 하게되었다.

⑩ 삼리(三里)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당시, 내촌(內村), 평촌(平村), 잔교(殘橋)의 세 마을을 통합하여 '삼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1) 세교(細橋·잔다리)

이 마을 한 가운데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을 건너는 조그마한 다리가 있다고 해서 '세교'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⑪ 신촌리(新村里)

이 마을은 산밑에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해서 '신촌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 인배(仁培)

이 곳에는 배(裵)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씨가 매우 어질다고해서 마을이름을 '仁培'라고 부르게 되었다.

⑫ 열미리(悅美里)

옛날 이곳에는 명당자리가 많아 고관들의 묘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십묘'(十墓)라 부르다가 이를 '열묘'라 하였는데 이 말이 다시 변하여 '열미'라고 하게 되었다고 한다.

(1) 되때기

이 마을은 산에 둘러싸여 마치 마을이 삼태기 안에 들어 있는 것 같고 농사가 잘된다고 해서 '되때기'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⑬ 유사리(柳寺里)

고려말의 풍수지리사 박상희 이란 이가 이곳의 지형을 '유지봉소형(柳枝鳳巢形)'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 이곳에 옛날에 절이 있다고 해서 버들유자와 절사자를 합하여 '유사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1) 버드나리(柳餘洞)

옛부터 이곳에는 버드나무가 많이 자라서 여름이면 오가는 길손들이 그 그늘에서 쉬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또 그 곁에 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그 냇물과 합하여 '유천리'라 부르게 되었는데 우리말로는 '버드나리'라 한다.

(2) 절골

지금은 없어졌으나 옛날에 이곳에는 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절이 있어서 이 마을을 '절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⑭ 연곡리(蓮谷里)

이 마을 중앙에 전주 이씨의 묘가 있는데 이 묘자리가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라고 해서 '연곡리'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고려말 때 천덕봉에 피신해 왔던 공민왕이 부항리(釜項里)에서 밥을 짓기 위하여 불을 때면 그 연기가 꼭 이쪽으로 불어온다고 해서 '연곡'(烟谷)이라하고 우리말로는 '내실'이라고 했다고도 한다.

(1) 새터

옛부터 이 마을에는 정자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잎이 무성하면 풍년이 들고, 나뭇잎이 시들면 흉년이 든다고 해서 한 해의 길흉을 그것으로 점쳤다고 한다.

이 마을 옆에 생긴 마을이라고 해서 '새터말' 또는 '새터'라고 한다.

(2) 인굴(人窟)

이 마을 뒷산 깊숙한 곳에 사람이 살던 큰 굴이 있다고 해서 이 마을을 '인굴'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⑮ 장심리(長深里)

마을의 형태가 길게 늘어 있는 '장재동'(長在洞)과 산속에 깊숙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동심리'(洞深里)라고 하는 두 마을을 통합을 할 때 두 마을에서 한자씩 따서 '장심리'라 부르게 되었다.

(1) 장재울

주위가 산에 둘러싸인 이 마을에는 옛부터 사람들이 모여 장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섰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곳을 '장재골'이라 하였는데 그 말이 변하여 '장재올', '장재울'이 된 것이라 하겠다.

⑯ 신대리(新垈里·새터말)

나무가 우거진 이곳에 해방이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새로 터를 닦아 만든 마을'이라는 뜻으로 '새터말'이라 하고 한자로 고쳐서 '新垈里'라 하게 되었다 한다.

3) 오포면

① 고산리(高山里)

행정구역 개편시에 고잠리(高蠶里)와 허산리(許山里)를 묶어 '고산리'로 부르게 되었다. 그것은 이 마을 뒷산인 문형상(文衡山)이 높다는 뜻으로도 우연히 일치하게 되었다.

(1) 고잠리(高蠶里)

이 마을은 지대가 높은 곳인데 여기서 누에를 많이 쳤다고 해서 높을고자와 누에잠자를 따서 '고잠동'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 구미동(九美洞)

조선조 때 어느 지관이 이 마을의 형태를 보고 '거북이의 꼬리' 같다고 해서 '구미'(龜尾)라 하고 달리 '九尾' 또는 '九美'라 쓰기도 한다.

(3) 허산(許山)이

조선조 후기에 허산(許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힘이 장사이어서 인근에 소문이 크게 났었다고 한다.

따라서 '허산이'라는 인명이 결국은 지명으로 변하여 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② 양벌리(陽筏里)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에 양촌리(陽村里), 벌리(筏里), 둔전동(屯田洞) 세 자연부락을 묶어 '양벌리'(陽筏里)라고 했던 것이다.

(1) 양촌(楊村)

조선조 후기부터 이 마을에는 양(楊)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그리하여 마을이름을 '楊村'이라고 하다가 후일에 '陽村'으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2) 벌(筏)말

이 마을 앞에 넓은 농경지가 있어서 벌말(野村)이라 부르던 것인데 이 음을 따서 '벌촌'(筏村)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둔전(屯田)말

고려시대부터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식량을 대기 위하여 군사들의 힘으로 농경지를 개척하는 밭을 '둔전'(屯田)이라 하는데 이 마을이 바로 그러한 마을이었다. 따라서 이름을 '둔전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4) 새터

원래 새피네장터에 살던 사람들이 을축년 홍수에 마을이 모두 침수되자 벌교(筏橋)를 중심으로 새로운 부락을 형성하고 이 마을을 '새터'라 부르게 되었다.

③ 추자리(楸自里)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자연부락인 추곡리(楸谷里)와 자작리(自作里)를 합하여 '추자리'라 부르게 되었다.

(1) 가래울

이 마을에는 옛부터 가래가 많아서 '가래골'이라 하였는데 모음아래서 ㄱ이 떨어져나가 '가래을'이라 하다가 '가래울'이라 부르게 되었다.

(2) 자작동(自作洞·자작이)

조선조 선조때 경원부사를 지낸 정응규(鄭應圭)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정착하여 일가를 이루어 '자작일가'(自作一家)라 했다고 하여 '자작동' '자작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④ 매산리(梅山里)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매곡리(梅谷里), 독산리(獨山里), 외곡리(外谷里) 세 마을을 합하여 '梅山里'라 부르게 되었다.

(1) 매곡동(梅谷洞)

조선조 초기에 어느 지관이 이 곳을 지나다가 이땅이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이라 하였다고 하여 이 마을을 '梅谷洞'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독산동(獨山洞·딴뫼)

이 마을 뒤편에 묘(墓)같이 생긴 산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 마을을 '딴뫼'라 하고 한자로 '獨山洞'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외곡동(外谷洞·밧골)

옛날에 이 마을에 백마산(白馬山)의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진 곳에 매곡동(梅谷洞)이 있고 그 밖에 이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밧골'이라 하고 한자로는 '外谷洞'이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⑤ 신현리(新峴里)

고려말의 충신인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 묘가 자리하면서 마을이 생겨났다. 이 마을은 원래 '상이리'(上二里)라 부르다가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으로 '신현리'(新峴里)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신촌(新村·새말)

웃말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적이 하도 심하여 이 마을에 모여 '새로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하여 '새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2) 태현(台現·태재)

고려말의 병조판서를 지낸 김자수의 묘를 이곳에 쓰게 되면서, '태재'라 부르게 되었는데, 광주군과 성남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신도비와 누각이 있다.

(3) 동막(東幕)골

옛날에 어느 농부가 이곳에 새로 농경지를 개간하려고 농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동쪽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동막골'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4) 퉁접골

조선조 말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천주교를 박해하자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 모여 유기를 만들어 살았다고 하여 이 고을을 '퉁접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⑥ 능평리(陵坪里)

고려말 충신인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가 개성에서 죽어 충남

으로 장례행렬이 지나다가 풍덕천(豊德川)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명정(銘旌)이 바람에 날려 이곳에 떨어지므로 이곳에 묘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1917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이곳의 일부가 용인군에 편입되었는데 그 후에 용인군 쪽에는 능원리(陵院里)라 부르고, 광주군 쪽에는 '능평리'라 부르게 되었다.

(1) 광주(廣州)말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능원천(陵院川)을 중심으로 갈라져 용인 쪽은 '용인말'이라 하고 광주 쪽은 '광주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2) 창(倉)뜰

조선조 초기에 이곳에는 남한산성에서 가져가는 군량미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창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3) 용산(龍山)골

옛날에 이 마을에 살던 용이 승천하려다가 사람의 눈에 띄어 승천하지 못하고 웅크린 채 산이 되었다고 해서 이 마을을 '용이 산이 된 마을'이란 뜻으로 '용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4) 수레실

남한산성으로 군량미를 나를 때 수레에 싣고 다녔다고 해서 이 마을을 '수레실'이라 하고 한자로는 '車谷'이라 하게 되었다.

(5) 능(陵)골

이 곳에 정몽주 선생의 묘를 쓴 이후에 이 마을을 '능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⑦ 문형리(文衡里)

고려조 말에 어느 예문관 대제학(大提學)이 내려와 이곳에 쉬면서 마을 주위의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이 산을 문형산이라 하였고 이 후에 이 마을을 또한 '문형리'라 하게 되었다.

문형이란 뜻은 대제학의 별칭이다. 본래는 이 산에 문수보살을 모셨다고 하여 문수산(文殊山)이라고 하였었는데, 앙불숭유(仰佛崇

儒)에서 명칭이 바뀌었던 것이다.

(1) 되치미

장마철만 되면 땀흘려 지어놓은 농사가 뚝이 무너져 물에 떠내려 가곤했는데 그럴 때마다 힘들여 뚝을 쌓으면 또 떠내려 가고 해서 '다시 친다'는 뜻으로 '되치미'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2) 봉골

이 마을 뒷산인 문형산에는 기암괴석이 많아 옛부터 부엉이가 많이 서식하였다고 하여 마을이름을 '부엉골'이라 불렀는데 이 말이 변하여 '봉골'이 되었다고 한다.

(3) 진해촌(眞海村·참바대)

옛날에는 이곳이 바다였다고 하여 마을이름을 '참바대'라 하고 이를 한자로 고쳐 진해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4) 초월면

① 대쌍령리(大雙嶺里)

광주읍에서 곤지암으로 향하여 가면 크고 작은 고개 2개가 연이어 나타나는데 이곳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으로 '대쌍령리'라 부르게 되었다.

② 용수리(龍水里)

이 마을의 한 부자집에 시주를 구하는 스님에게 시주 대신 쇠똥을 준 부자가 스님의 지시대로 건너편에 있는 자기 조상의 묘앞에 망두석을 세우려고 팠다가 물이 나와 내를 이루었으며 산은 용의 머리모양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리하여 이 마을을 용용자, 물수자를 따서 '용수리'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수입(水入·무드리)

이 마을로 '물이 들어온 곳'이란 뜻으로 '물들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변하여 '무드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용두(龍頭)

이 마을이 자리잡은 산의 형태가 마치 용의 머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용두'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3) 장담(長潭)

이 마을 뒷산이 용머리처럼 생겼는데 이곳에서 물이 흘러 내를 이루었는데 장마만 지면 이 마을이 물에 잠긴다고 해서 '長潭'이라 부르게 되었다.

③ 지월리(池月里)

이 마을 한 가운데 못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 마을을 '지곡'(池谷)이라 하였는데 여기에 달이 비치면 매우 아름답다고 해서 '지월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초월면에서 '월'자를 따서 '지월리'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1) 설월(雪月)

경상도에 사는 어느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이곳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눈이 내리고 눈이 그치자 그 위에 달빛이 비치는 것이 마치 선경(仙境)처럼 아름다웠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마을을 '설월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92) 경수(鏡水)

조선조 선조시대에 낙향하여 이곳에서 살던 노은(老隱) 김정립(金正立)이 명경지수(明鏡止水)란 말에서 두 자를 따서 '경수'(鏡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하고, 혹은 이 마을 앞으로 흐르는 냇물이 거울같이 맑고 깨끗해서 '경수'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④ 학동리(鶴東里)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에 상동막(上東幕), 중동막(中東幕), 학현(鶴峴) 세 마을을 통합하여 '학동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 상동막(上東幕)

이 곳의 지형이 마치 막(幕)을 둘러친 것과 같다고 해서 막동(幕

洞)이라 했는데 이 위쪽을 '상동막' 그 아래쪽을 '하동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한다.

(2) 학현(鶴峴·하오개)

이 마을 앞에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에는 학이 많이 서식했다고 하여 마을이름을 학(鶴)과 고개(峴)를 합하여 '鶴고개'라 불렀는데 이 말이 변하여 '하고개·하오개'라 하게 되었다.

⑤ 신월리(新月里)

이 마을의 형태가 마치 초승달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신월리'라 하게 되었다고 하고, 또 일설에는 원래 이 마을이 못골(池谷)에 일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때 새로 독립된 마을이라고 해서 '신월리'라 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1) 두월(斗月)

이 마을의 형태가 반달같이 생겼다고 해서 반(半)을 두(斗)로 고쳐 '두월리'(斗月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또 어떤 설에 의하면 이 마을밭에서는 수수가 유난히 잘되어 방망이로 두드린다고 해서 '두달이', 즉 '斗月이'가 되었다고 한다.

(2) 탄동(炭洞)

조선조 말엽에 숯을 구워서 한양에 내다 팔아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이 마을에 집단으로 거주했다고 해서 '탄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93) 사기막(沙器幕)골

이 마을에는 사기그릇을 굽던 사기막이 있었다고 하여 '사기막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⑥ 쌍동리(雙東里)

두 마을로 형성된 이 부락은 양 마을이 꼭 같다고 해서 '쌍동'(雙童)이라고 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 '쌍동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1) 소쌍동(小雙洞)

두 개의 고개가 쌍동이처럼 나란히 있는데 작은 고개에 위치한다고 해서 '소쌍'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도곡(道谷)

이 마을은 길옆 깊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도곡'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건축자재로 쓰는 석재가 여기서 생산되고 있다.

⑦ 도평리(島坪里)

이 마을은 곤지암천이 둘러 흐르므로 마치 섬처럼 되었다고 해서 옛부터 '섬뜰'이라고 했는데 이를 한자로 '島坪'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윗쪽에 위치한 부락은 '상도평', 아래쪽은 '하도평'이라고 한다.

⑧ 산이리(酸梨里·신배골)

이 마을에서는 신맛나는 배가 생산된다고 해서 '산이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 점(店)말

이 마을은 독을 구울 때 쓰는 점토가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점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이 마을에는 독점이 있다.

⑨ 선동리(仙東里)

이 마을은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에 선장동(仙場洞)과 하막동(河幕洞)을 합하여 '仙東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일설에는 이 마을에 있는 연못에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91) 선장(仙場)동

이 마을에는 하늘에서 신선들이 내려와 놀다간 곳이라고 해서 '선장골'이라하게 되었다고 한다.

(2) 하동막동(下東幕洞)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 마치 막을 둘러친 것과 같다고 해서 막동(幕洞)이라 했으며, 그 위치가 아래 동쪽에 있다고 해서 '하동막동'이라 했다고 했다.

⑩ 서하리(西霞里)

이 마을 옆을 흐르는 경안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또 이 물줄기로 인하여 안개가 자주 낀다고 해서 '서하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 사마루(四馬樓)

고려말에 충신 4명이 말을 타고 이 마을 곁을 지나다가 잠시 이 마을을 돌아보니 그 형태가 마치 누각(樓閣)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마을을 '사마루'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 안골

원래의 큰 부락이 있는 안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해서 '안골'(內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⑪ 무갑리(武甲里)

이 마을 뒷편에 해발 400m나 되는 산이 있는데 옛날에 이곳에서 '무인(武人)'이 입던 갑옷(甲冑)이 나왔다고 해서 이 마을을 '무갑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 무래비

무인(武人)의 갑옷이 나왔다는 이 산에는 높고 험한 고개가 있는데 행인들이 이 고개에서 쉬어 넘었다고 해서 '무래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⑫ 늑현리(勒峴里·구러개)

이 마을 어귀에 있는 고개가 마치 말 굴레(勒)처럼 생겼다고 해서 '굴레고개'라고 했는데 이 마을이 변하여 '구러개'가 되었으며, 한자로는 '勒峴里'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5) 중부면

① 광지원리(光池院里)

조선조 여주의 영릉에 왕래하던 임금이 쉬시는 역원(驛院)이 이곳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연못에 햇볕이 비치면 연못이 빛을 발

했다고 해서 이 마을을 '광지원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 굴바위골

이 마을 앞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는 큰 굴이 뚫려있어 '굴바위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② 상번천리(上樊川里)

마을 중앙으로 번천(樊川)이라는 냇물이 흐르고 있는 양편으로는 산이 울타리처럼 싸고 있다고 해서 '상번천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 관청수(灌淸水)

마을 앞으로 논에 대는 충분한 봇물이 흘렀는데 그 물이 유난히 맑아서 '관청수'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내곡

이 마을에는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냇물이 흐른다고 해서 '내곡'이라 부르게 되었다.

(3) 벌래(樊內)

마을 주위에 산이 울타리처럼 둘러쌌다고 해서 '벌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변하여 '벌래'라 부르게 되었다.

(4) 송현(松峴·솔치)

조선조 말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뒷산에는 소나무가 유난히 많이 우거졌다고 해서 '솔치'라 부르게 되었으며 한자로는 '松峴'이라 쓴다.

③ 하번천리(下樊川里)

마을 중앙으로 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양편으로는 산이 울타리처럼 형성되었는데 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라서 '하번천리'라 부르게 되었다.

(1) 박진(朴陳)이

이 마을에는 옛부터 박씨와 진씨가 많이 모여사는 집성촌(集姓村)이라 하여 '박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92) 양지(陽地)말

상번천리에서 하번천리로 향하여 내려가다가 왼편 양지바른 곳에 형성된 마을이라서 '양지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④ 엄미리(奄尾里)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엄고개'와 '미라'(尾羅)을 합하여 '엄미리'(奄尾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또한 일설에 의하면 한양에 살던 엄정승(嚴政承)이라는 이가 이곳에 명당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고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고개의 형태가 '뱀의 꼬리'같다고 해서 '엄미리'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1) 미라울

밀양 박씨가 이곳에 묘를 쓰고 난 후부터는 '밀양골'이라 하였는데 이 말이 변하여 '미라울'이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2) 벽수(碧水)골

마을 뒷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냇물이 하도 맑고 푸르러서 이 마을을 '벽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3) 새말

옛날에 이 마을을 지나던 원(員)님이 이곳을 지날 때 엄나무 가지에 새들이 쉬고 있는 모습이 하도 평화스러워 이 마을을 '새말(鳥村)'이라 했다고도 하고, 또 이 마을은 '새로 만든 마을'이라 해서 '새말'이라 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4) 안말

마을의 위치가 엄미리 오른쪽 산기슭이라서 안쪽에 있다고 해서 '안말'이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⑤ 검복리(黔伏里)

이 마을은 검단산(黔丹山)밑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밑에 마을이 엎드려 있는 모양이라서 '검복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 남벽수(南碧水)

감단산 줄기 남쪽 끝에 산이 병풍처럼 둘러친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의 물이 어찌나 맑던지 '남벽수'라 부르고 있다.

(2) 양지말

검단산 밑에 양지 바른 곳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양지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⑥ 불당리(佛堂里)

조선조 선조시대에 이곳에 불당(佛堂)을 지어놓고 근방 마을사람들이 부처님을 믿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불당골'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불당리'라 부르게 되었다.

⑦오전리(梧田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오야소'와 둔전촌을 합하여 오전리라 부르게 되었다.

(1) 오야소(梧野所)

현재의 오전리에는 5개의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동나무가 많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오야소'라 부르게 되었다.

(2) 둔전(屯田)말

이곳에는 고려시대부터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군량미를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던 둔전이 있었다고 해서 '둔전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3) 좁은목

이 마을의 형태가 좁은 골짜기의 목(項)처럼 생겼다고 해서 '좁은목'이라 부르게 되었다.

⑧ 산성리(山城里)

이곳에 있는 성은 조선조 인조때 두 차례나 증축한 일이 있는데 이 마을은 이 성이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 해서 '산성리'라 부르게 되었다.

6) 도척면

① 노곡리(老谷里)

이 마을 뒷산이 노루처럼 생겼는데 이 마을은 그 목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노루목'(獐項)이라 했는데 행정구역 개편시에 '老谷里'라 하게 되었다.

(1) 노루목

이 마을에서 상림리(祥林里)로 넘어가는 산의 생김새가 새끼노루가 어미노루를 바라보는 형상이라고 해서 '노루목'이라 부르게 되었다.

(2) 고녹골

이곳에 있는 논들은 풍부한 관개수로에 비옥한 땅이므로 '고은논'(麗畓)이라 불렀는데 여기에 비옥하다고 해서 옥자(沃)를 넣어 '고은(麗), 옥(沃), 골(谷)'이 합하여 '곤옥골'이 되고 다시 '고녹골'이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② 진우리(鎭牛里)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때에 진(鎭)말과 우치(牛峙)말을 합하여 '진우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 옛진말

현재의 진우리 공동묘지 밑에는 신안(新安) 주(朱)씨가 공동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상여의 출입이 많은 곳이라 이곳으로 옮기면서 먼저 살던 곳이라고 해서 '옛진말'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2) 우치(牛峙)

이 산에 있는 바위들이 하도 기암괴석이어서 이것을 갖다가 삼각산에 갖다 놓으려고 바위에 구멍을 뚫어 소로 끌고 가다가 이 고개에서 소의 보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소가 넘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마을을 '소티'라 하고 한자로는 '牛峙'라 쓰게 되었다.

(3) 신대(新垈·새말터)

예진말, 우치부락, 진말이 순서대로 형성된 다음에 새로이 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새터말'이라 하고 한자로는 '新垈'라 쓰게 되었다.

(4) 웃점말

이곳의 토질이 질그릇 만드는 점토(粘土)이어서 '점말'이라 했는데 그 위치가 위에 있다고 하여 '웃점말'이라 한다.

(5) 큰골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경관이 아름답고 큰 골짜기라고 해서 이곳을 '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③ 상림리(祥林里)

이 마을 뒷산의 형태가 누에모양이고 이곳에서는 뽕나무가 잘 된다고 해서 '상림리'(桑林里)라 했는데 이를 후에 '祥林里'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사기소(沙器所)

옛날에 이곳에서는 사기그릇을 굽던 곳이라고 해서 '사기소'라 하였다. 지금도 사기그릇 깨진 것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 곳이다.

(2) 승방(僧房)터

이곳은 산세가 좋아 부처님을 모시는 절을 지었으나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고 해서 '승방터'라고 부르게 되었다.

(3) 시어골

이곳에는 산세가 험준하고 맹수들이 많아서 '이곳에서는 살기 싫다'고 해서 '시어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④ 방도리(芳都里)

1917년 행정구역 개편시에 '방등리'(芳登里)와 '내도척'(內都尺)을 합하여 '방도리'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1) 되재

속설에 의하면 이곳에 도읍을 정하려던 온조왕이 땅을 되풀이해서 재었다고 해서 '되재'라고 하였다고 하나, 이곳은 용인군과 접경지대라 산이 험준하여 넘나들이 '된 재(峴)'란 뜻인 '된재'가 변한 말인 듯하다.

⑤ 도웅리(陶雄里)

조선시대에 이 곳에서는 질그릇을 만들어 팔러다닐 때 넘던 '독고개'와 '옹골'(甕洞)을 합하여 '도웅리'라 부르게 되었다.

(1) 고해(古海)

도웅리 앞으로 흐르는 냇물이 예전에는 벼락바위 앞으로 흘렀는데 그때 이 냇물이 넓고 깊어서 마치 바다 같다고 해서 '고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독고개

옛날에는 한양으로 옹기(甕器)를 팔러갈 때 넘던 고개라 하여 '독고개'(甕峴)라 했다고 한다.

(3) 웅골

조선시대에 질그릇을 만들던 도요지가 지금도 있으니 원래 '옹골'(甕洞)이라 하다가 '웅골'으로 변하여 부르게 되었다.

⑥ 유정리(柳井里)

1910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유여동'(柳余洞)과 '운정동'(雲井洞)을 합하여 '유정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 운정동(雲井洞·굴우물)

이 마을에는 옛부터 유명한 영천(靈泉)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언제나 안개와 구름이 끼어있어 '운정동'이라 하고 우리말로는 '구름우물'이라 했는데 이 말이 변하여 '굴우물'이라 한다.

(2) 미륵동(彌勒洞)

고려시대부터 노상에 버려두었던 석불(石佛)을 조선조 말기 진사(進士) 조희백(朝熙百)의 아내가 잘 모시자 낳지 못하던 득남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던 이후부터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되었으니 마을이름도 '미륵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3) 바위산골

마을 주위에는 태화산과 미역산이 있어서 기암괴석이 많은데 마을이름도 '바위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⑦ 궁평리(宮坪里·궁뜰)

조선조 시대에 궁에서 내린 땅이라고 해서 이곳을 행정구역 조정 당시 '궁평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백제시대 궁중의 땅이 있던 들(坪)이란 뜻으로 '궁뜰'이라 부르기도 한다.

⑧ 추곡리(楸谷里·가래실)

조선시대에 서판서(徐判書)란 분이 피난처를 찾아 이곳에 정착하여 살기 위하여 큰 집을 짓고 둘레에 가래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곳을 '가래실'이라 했는데 이를 '추곡'이라 부르게 되었다.

7) 퇴촌면

① 광동리(光東里)

192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광복동'(光復洞)과 '동지벌촌'(東地筏村)을 합하여 '광동리'라 부르게 되었다.

(1) 광복동(光復洞·광백이)

이 마을은 풍광(風光)이 아름답고 항상 햇볕이 가득한 마을이라고 해서 '光復洞'이라 하는데 속명으로는 '광백이'라 부른다.

(2) 동지벌촌(東地筏村)

조선조 인조왕대에 병자호란을 맞아 군량미를 전국 각처에서 거두어 드릴때 이곳 '넓은 벌판 마을에서 군량미를 가장 많이 내는 마을이란 뜻으로 '동지벌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② 도수리(陶水里)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에 도지동(陶池洞)과 수동(水洞)을 합하여 '도수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 도지동(陶池洞)

이 마을에는 큰 연못이 있었고, 그옆에는 도자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도지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2) 수동리(水洞里·참새미)

옛날 이 마을에 살던 김생원이라는 집 앞마당에서 맑고 찬 샘물이 솟아나와서 마을이름을 찬(冷), 샘(泉)이라 뜻으로 '참새미'라 부르고 한자로는 '水洞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3) 삼백(三白)골

옛날에 이 마을에는 백씨 성을 가진 부자 세 사람이 살았는데 인심이 좋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었다고 해서 '삼백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4) 탑선동(塔仙洞)

조선조 초기에 이 마을에는 탑이 있었는데 속설에 의하면 이 탑에다 빌면 무엇이고 소원성취할 수 있다고 하여 마을의 처녀·총각들이 이 탑에 비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을이름을 '塔仙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③ 우산리(牛山里)

마을 주위에 있는 산의 형세가 마치 소가 누워있는 와우형(瓦牛形)이라고 해서 '우산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1) 박석(朴石)거리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는 박씨와 석씨가 집단으로 대를 이어 거주한다고 해서 '박석거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2) 소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형태가 앵소모양같이 생겼다고 해서 '앵소산'이라 하기도 하고 '소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산밑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소미'라 하게 된 것이다.

(3) 절막

앵자봉 주위에는 학문을 닦기 위하여 사람들이 공부하는 암자가 많았으니 천진암(天眞庵), 백년암(百年庵), 일출암(日出庵)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천진암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절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④ 도마리(道馬里)

이곳에 사람을 괴롭히는 여우를 한 도공(陶工)이 죽이자 그 죽은 여우의 혼이 다시 사람을 괴롭혔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혼을 누르기 위하여 질(陶)로 말(馬)을 만들어 여러 개를 이 고개에 세웠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이곳을 '도마리'(陶馬里)라 하였는데 그 후에 '道馬里'라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⑤ 관음리(觀音里)

1923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당시에 관음동(觀音洞), 도장동(都長洞), 절골을 통합하여 '관음동'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1) 도장동(都張洞)

옛날부터 '도장동'이라 불러왔는데, 지금은 '도장동'(都長洞)이라 쓰지만 도압동(道壓洞), 도장동(道長洞)이라고도 쓰지만, 이 말은 필경 불도(佛道)를 닦는다는 '도장'이 변하여 이루어진 지명이라 생각된다.

(2) 절골

이 마을에는 마을사람 모두 따르는 고승이 사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마을을 '절골'(寺谷)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⑥ 무수리(無愁里)

예전에 이 마을에는 광산(光山) 김씨가 집단으로 살고 있었는데, 경치가 좋고 인심이 후한 곳으로 마을주민들이 모두 '근심(愁)없이 모두 산다'고 하여 '무수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⑦ 영동리(嶺東里)

조선조 초기에 광주목사(廣州牧使)가 이곳을 지나다가 동쪽 큰 고개(嶺)밑에 자리잡은 마을이라고 했다 해서 '영동리'라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1) 거먹골

이 마을 중앙에는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는 큰 거북이 한마리가 살고 있는데 마을에 무슨 흉사가 있을때면 나타나서 예고를 해 주었다고 해서 '거북골'이라 불렀는데 나중에 이 말이 변하여 '거먹골'로 변했다는 것이다.

92) 구룡동(九龍洞)

아주 먼 옛날에는 이 마을은 바다였다고 한다. 이 바다가 육지가 되면서 큰 연못이 하나 생겼는데 어느 여름에 비가 주야로 4일간 쏟아지더니 이 못속에 있던 아홉 마리의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을 '구룡동'이라 하게 되었다.

(3) 석둔(石屯)

옛날에 이 곳에서 전쟁이 있을 때 돌로 진을 쳐서 석진(石陣)을 만들었다고 해서 애초에는 '석진'(石陳)이라 했는데 이 말이 변하여 '석둔'(石屯)이 되었다고 하며, 또 일설에는 석씨 성을 가진 장군이 이 전쟁에서 전공을 세웠고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었다고 해서 '石屯'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⑧ 오리(梧里)

이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오동(梧桐)나무가 한 그루 있어 그 나무의 상태를 보아 일년의 길흉을 점쳤다고 하여 '오동나무골'이라 하다가 한자로 '梧里'라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3년 팔당댐이 생긴 이래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

⑨ 정지리(亭支里)

192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정자동'과 지위동(支渭洞)을 통합하여 '정지리'라 부르게 되었다.

(1) 정자동(亭子洞)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이 마을에는 정자가 있었다고 하여 마을이름을 '정자동'이라·하게 되었다.

(2) 지위동(支渭洞)

조선시대에 한양에 사는 고관대작댁 자제들이 이곳에서 한가롭게 낚시질하던 곳이 기산위수(奇山謂水)라 하여 애초에는 '기위동'(奇渭洞)이라 하였으나 후에 '지위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⑩ 원당리(元堂里·원댕이)

예전에 이 마을에는 날씨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원지'(元地)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해서 '원댕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일설에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다고 해서 '으뜸되는 사람'이란 뜻으로 '원댕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 가생이골

이 마을은 원댕이 맨 가상자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가생이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8) 남종면

① 분원리(分院里)

조선조 시대 궁중에서 쓰는 사기그릇을 관장하던 사옹원(司甕院)의 현지 제작소가 있던 곳으로서 분점(分店)이란 뜻에서 분원이라 불리웠다. 영조시대에는 분루원이라고도 불렀다. 이곳에는 옹기 및 사기를 구워파는 시장이 오랜동안 번창하였으나 을축년 대홍수 이후에는 쇠퇴하였으나 광주 분원하면 지금도 사기(沙器)그릇을 연상하는 곳이다.

② 검천리(檢川里)

능곡·알미·종탄의 세 자연부락을 합하여 원래는 '사천리'(四川里)라 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개천을 측량한 이후에는 '검천리'라 부르게 되었다.

(1) 검주(檢舟)

이곳은 수심이 낮아 여주, 원주 등지로 가던 뱃짐이 이곳에서는 다시 짐을 내려서 간다고 해서 '검주'(檢舟)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능곡(陵谷)

충청도에서 한양으로 풍산(豐山) 심(沈)씨 집안의 장례행렬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으로 명정(銘旌)이 날려 이곳에 꽂히므로 여기에 묘를 썼다고 한다. 이리하여 이곳 지명이 '능곡'이 되었다는 것이다.

(3) 알미

이 마을 건너편에서 바라보면 마을의 형태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알미'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4) 양지(陽地)말

이 마을 주위의 경관이 아름답고 또 양지가 바른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양지말'이라 이름하게 되었다 한다.

(5) 종여(終灘)울

청탄에서부터 시작한 남한강의 거센 여울이 이곳에 와서 끝난다고 해서 '종여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③ 수청리(水靑里·푸르레여울)

이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강줄기가 하도 맑고 푸르러서 이름을 '푸르레여울'이라 부르고 한자로는 '청탄'(靑灘)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수청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윗마을은 '청탄' 아랫부락은 '작은청'이라 부른다.

(1) 구항동(狗項洞·굽은목)

이 마을 앞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거센 여울을 이루면서 흙과 모래를 퇴적(堆積)시키면서 물줄기가 굽어 꺾이는 곳이라고 해서 '구항동'이라 하고 속칭으로는 '굽은목'이라 부른다.

④ 귀여리(歸歟里)

조선조 중종때 정승(政丞) 한 분이 이곳에 낙향하여 귀여정(歸歟亭)이란 정자를 짓고 소일하였다고 하여 이 마을을 '귀여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귀여리'라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1) 귀실(貴室·구실)

옛날 어느 정승 한 분이 이곳 경관이 하도 아름다워 발길을 멈추고 잠시 쉬어갔다고 해서 '귀실'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구실'이라 부르게 되었다.

(2) 수리울

이 마을의 입구는 좁으나 그 안은 매우 넓은 마을인데 뱀바위 부엉바위등에는 독수리, 부엉이같은 수리과 조류(鳥類)등이 많이 살았다. 그리하여 마을이름도 '수리골'이라 하다가 지금은 '수리울'이라 부르게 되었다.

(3) 제청(祭廳)말

옛날에 이 마을에는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청이 있었다고 하여 '제청말'이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수몰(水沒)되었다.

⑤ 금사리(金沙里)

옛부터 이 마을 앞으로는 하천이 하나 있는데 이 하천에는 사금(砂金)이 났다고 한다. 따라서 이 마을을 '金沙里'라 부르게 되었다.

(1) 구(舊)터

조선조 시대 사옹원(司饔院)에서 필요한 사기그릇을 굽던 가마터(窯址)가 있던 곳인데 이 가마가 분원(分院)으로 옮긴 후 이곳은 '가마터가 있던 옛터'란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⑥ 삼성리(三成里)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에 '삼정동'(三政洞), '과학동'(過鶴洞), '족자동'(簇子洞)을 합하여 '세 마을이 모여 이루어진 마을'이란 뜻으로 '삼성리'라 부르게 되었다.

(1) 삼정(三政)골

이곳은 경관이 아름다워 조선조 말기에 안(安), 노(魯), 권(權)씨 성을 가진 세정승(政丞)의 묘를 썼다고 해서 '삼정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 과학동(過鶴洞)

이곳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학들이 무리를 지어 이곳에서 서식하였다고 하여 마을이름을 '과학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3) 족자동(簇子洞)

조선시대 권교인(權敎仁)이란 정승이 임금으로부터 족자(簇子)를 하사받아 족자에 쓰인 데로 95칸 짜리 큰 집에 살았다고 해서 '족자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⑦ 이석리(二石里)

이곳은 1914년 전국의 행정구역이 개편되던 이전 시기까지는 성림동(聖林洞)이라 부르다가 조선조 말기 고종황제의 자(字)가 성림(聖林)이라 황공하여 석림(石林)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웃의 석호정(石湖亭)을 합하여 '이석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Ⅱ. 광주의 역사

1. 선사시대의 광주

선사시대란 역사시대에 대칭(對稱)되는 개념으로 통상 인간의 역사중 문자로 기록되지 못한 시기를 의미하며 대개 국가 발생 이전의 시기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대체로 구석기시대, 신선기시대, 청동기시대 등으로 시기 구분이 되는데 이 시기에 대한 이해는 문헌자료가 없으므로 다만 고고학적 검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광주지역 선사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광주지역은 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풍부한 선사시대의 유적지가 남아있어 이 지역의 역사적 연원의 깊이를 보여 주고 있다.

1) 구석기시대의 광주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문화유적이 발굴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이후로서 먼저 북한의 함경북도 웅기군에서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층이 발견되었으며, 남한에서는 1964년에 광주군과 장기군(長岐郡) 석장리(石壯里) 금강북안에서 발굴 조사되었다.

특히 한강 하류및 경기도 일대 서울 면목동, 경기도 화성군, 양주군, 충남 연기군 등지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 되었으며 여기에다 최근에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일명 궁뜰)에서 구석기유적(고인돌, 돌무지)이 발견되어 이 지역 선사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 신석기 시대의 광주

광주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서는 암사동 유적과

미사동 유적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암사동 유적은 중·서부 신석기유적의 대표적 유적으로 손꼽혀왔다.

① 암사동(岩寺洞) 유적

암사동유적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발굴되었으며 과거에는 광주군 구천면 암사리에 속해 있었다. 현재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보존하여 일반에게 공개중에 있다.

② 미사리(渼沙里) 유적

미사동유적은 하남시 미사동에서 발굴되었으며 과거에는 광주군 동부면 미사리에 속해 있었다. 현재 계속 발굴 조사중에 있다.

3) 청동기(青銅器)시대의 광주

과거 광주 땅이었던 서울의 역삼동, 가락동, 명일동과 하남시의 미사동에서는 주거지 유적이, 고덕동 덕풍동에서는 석기등 유적이 발견되고 광주군 도척면 궁평리와 초월면 쌍동리에서는 지석묘 유적등 많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의 존재는 전기(前記)한 신석기시대 이래 청동기시대에서도 광주일대가 주민들의 주요 거주 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2. 삼한(三韓)시대의 광주

상고시대에 한반도 남부에 자리 잡고 있던 부족사회를 일컬어 삼한시대라 하는데 삼한은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변진(弁辰)을 말한다.

삼한에 관한 주요한 사료로는 위지(魏志) 후한서(後漢書) 등이며 여기에 견문기·풍토기적인 기사와 일종의 교섭사적(交涉史的)인 단편이 혼합되어 있을 뿐이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본래 이 지역에는 국가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소국이었던 목지국(目支國)이 군장(君長)(보통진왕(辰王)이라 하였

음) 세력하에 있던 진국(辰國)이라는 부적연맹체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진국의 동북계 지역에는 일찍부터 북쪽 나라에서 남하 이주해 온 사람들로서 집단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위만(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으로 망명한 소위 기자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준왕(準王)이 정주한 곳도 이 고장이다.

유이민(流移民)의 사회는 준왕(準王)이래로 스스로 한(韓)이라 부르며 목지국(目支國)의 우두머리인 진왕의 보호와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낙랑의 한인들은 이를 진한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한의 칭호는 점점 확대되어 진왕을 맹주로 받드는 모든 소국에 대해서도 한의 칭호가 붙게 되었다.

후한말(後韓末) 대방군(帶方郡)이 새로 설치될 무렵에는 진한과 아울러 마한·변한이라는 명칭이 나나타게 되었다.

마한의 마는 본래부터의 족명(族名)인 개마(蓋馬)에서 온 것이라 하며 변한의 변은 그들이 사용한 관모(冠帽)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한다.

진한과 마한의 지리적 위치에 대하여 위치및 후한서 등에는 모두 마한은 서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다고 되어있다.

이병도박사는 마한은 서남에 위치하였고 진한은 동북에 위치하였다고하며 진한을 한강 유역까지 포함시키는 설을 내고 있다.

즉 오늘날의 광주지방이다.

이 한왕이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에 대하여 이병도박사는 광주의 고호(古號)가 회안(淮安)임에 착안하여 그의 저서에서 논술 한 바 있다.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및 동국여지승람 등의 광주나 기타 광주읍지의 연혁조를 보면 모두 광주의 별호를 회안(淮安)이라 하고 광주 고로들의 전설에는 지금의 경안이 옛날 회안국왕의 소도지(所都地)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뚜렷한 고증자료가 없는 것이 아쉽다.

다만 경안천 큰다리 밑에 놓인다리에 회안교(淮安橋)라 새겨져 있으나 지금은 경안교 아래쪽 약 1000m 지점에 교가 몇개가 있을뿐이며 광주읍 목현리에서 내려오는 개울에 놓인 파발교(把撥橋)의 이름을 새긴 것을 보았을 정도이지 연대 미상이다.

3. 백제시대의 광주

1)삼국의 하나로 한반도 서남쪽에 있었던 왕조가 백제이다.

시조 온조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과 졸본왕녀(卒本王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주몽이 부여에 있을때 예씨에게서 낳은 유리(類利)가 와서 태자가 됨으로 그의 형 비류(沸流)와 함께 오간(烏干) 마여등 10여명 신하와 약간의 백성들을 이끌고 남하하였다. 그리하여 한수 북쪽 지금의 서울 부근인 위례부락(慰禮部落) 하북위례(河北慰禮)에 자리잡고 형 비류는 미추홀(彌鄒忽)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비류는 미추홀에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거주할 수 없으므로 돌아와 위례를 보니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한지라 부끄럽고 후회하며 죽으니 그 신민이 모두 위례에 기부(歸附)하였다. 그후 온조왕은 국호를 십제(十濟)에서 백제로 개칭하였다. 온조 13년에 하북위례성에서 한수를 건너 지금의 몽촌토성 부근 평지에 궁궐을 짓고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는 한편, 목책을 세워 도성의 모습을 갖추고서 하남위례성이라 이름하였다. 그후 하남시 춘궁동 이성산(二聖山)밑에 하남위례성으로 천도 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백제의 첫 도읍지인 위례성의 위치는 현재의 충남 천원군 직산 부근으로 보는 견해가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하여도 거의 정설이 되다시피 하였다. 문헌상 위례성이 직산설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삼국유사이다. 즉 삼국유사 1권 왕력(王歷)에 기록된 백제 온조왕 즉위년조에는 '위례성에 도읍함이라고 되어 있음. 혹은 사천(蛇川)이라고도 함, 지금의 직산이라 하였으며 다시 동왕

변진년조에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는데 지금의 광주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례성의 직산설이 아무런 근거없이 나왔다기 보다는 실제로 직산지역이 백제시대 위례성으로 불이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백제가 고구려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남천한 이후의 일로서 온조왕 14년의 천도지 즉 하남위례성이 지금의 광주지역에는 그뒤로 아무런 이론이 없지만 초도지(初都地)인 위례성이 직산에 있었다는 삼국유사 이래의 주장은 실학자 정약용에 의하여 비로소 부정되고 서울, 광주 일대가 백제의 초도지였다는 주장이 정착하게 되어 오늘날은 대부분이 이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

백제왕실은 원래 부여족으로서 부여족은 서기 286년에 모용씨(慕容氏)에게 멸망된 후 그 일파가 남하하여 함경도 지방의 옥저(沃沮)로 들어가고 다른 일파는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마한의 하나인 백제국(伯濟國)에 정착하여 마한을 정복 통일의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이 확립된 것은 제13대 근초고왕 시대로 보인다. 백제의 사실상의 건국은 이때에 된 것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근초고왕은 동진으로 사신을 보냈으며 마한의 나머지 땅을 합치고 북으로는 대방군의 땅을 점령하여 낙랑군을 차지하고 남하하는 고구려세력과 충돌하게 되었다. 서기 371년(근초고왕 26년)에 임금은 그의 아들 근구수(近仇首)로 하여금 고구려를 치게 하여 평양에까지 쳐들어 가서 고구려의 고국원왕(故國原王)을 전사케 하였다.

그러나 곧 고구려의 반격을 받아 다소 후퇴하여 수곡성(水谷城) 신계(新溪)에서 고구려와 상대 하였다.

당시 전진(前秦) 고구려 신라의 삼국연맹에 대항하여 백제는 중국 남조의 동진 및 신라와 자주 싸우던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이에 대항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여 아직기(阿直岐) 왕인(王仁)

등을 일본에 보내어 한학을 가르쳤다.

그러나 서기 396년 아신왕(阿莘王)5년에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의 군대에게 대패하여 임진강 유역을 잃었고 서기 399년에는 신라 및 가야에 침입했던 일본군도 고구려군에게 소탕되어 백제의 위치는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더구나 제21대 개로왕 재위(在位)때에는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의 압력이 한층 더 심해져서 백제는 중국의 북위(北魏)와 교류하여 고구려의 남진하는 세력을 견제하려 하였으나 실패 하였다.

서기 475년 문주왕(文周王)1년에는 백제의 서울인 남한산성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개로왕마저 사로 잡혀 죽고 말았다.

그리하여 문주왕은 곧 서울을 웅진(熊津·공주)으로 옮겼으며 여기서 삼근왕(三斤王) 동성왕(東城王) 무녕왕(武寧王) 성왕(聖王)의 오대의 치세가 열렸다.

서기 538년(성왕 16년) 다시 부여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으니 공주시대는 겨우 63년에 지나지 않았다.

2) 위례성과 고골

백제 왕국은 백제 부족을 주체로 하여 형성된 고대국가로 북방에서 이동한 부족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남하 과정에서 토착세력을 흡수 부속시키면서 성장한 유민집단이다.

백제 초기의 도읍지에 대한 고대 역사책을 살펴보면,「삼국사기」에는 온조와 비류가 한산에 이르러 부아산에 올라가서 도읍터를 물색하다가 비류는 해변에 살기를 원하니 신하 열사람이 아뢰되「이 하남의 땅이 북쪽에는 큰강이 있고 동에는 높은 산이 있으며 남에는 기름진 땅, 서에는 큰 바다가 막혔으므로 여기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하고 비류는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지금의 인천문학산)로 갔다고 한다.

「백제 본기」에는 온조왕 13년에 왕이 신하에게 말하기를「동에는

낙랑이 있고 북에는 말갈족이 있어 우리나라를 침범하니 편안한 날이 없고 요성(악한 별이라는 뜻)이 여러차례 모이므로 도읍을 옮겨야 했다. 어제 나가보니 한강 남쪽지방이 토지가 비옥하므로 그곳으로 옮기겠다」하고 한산 아래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에서 백성을 옮기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온조왕 14년 한산하로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

「백제사」에는 근초고왕 26년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다 하였고 문주왕 원년에 웅진으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맨 처음이 위례성, 다음이 한산아래, 다음이 한산 그리고 웅진이다.

3) 위례성(慰禮城)

온조가 한산에 이르러 부아산에 올라가서 도읍터를 관찰했다는 한산과 부아산의 정체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한산은 고을 이름도 한산이 있고 산 이름도 한산이다. 백제가 웅진으로 고구려에게 밀려난 후 고구려가 이곳을 한산군이라 칭했고 그 후 신라가 점령한 후에도 한산주라 일컬었다. 또 산이름에는 남한산, 북한산이 있다. 온조가 한산에 이르러 부아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부아산은 한산의 산맥이거나 근처에 있는 산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산의 주된 봉우리인 삼각산의 다른 이름이 부아산이다. 그러므로 그때 온조가 올라갔다는 한산은 북한산으로 추정해야 하며 신하가 말하기를 북에는 큰 강이 있고 동해는 높은 산, 남에는 기름진 들, 서에는 큰 바다가 막혔다는 하남의 땅이 어느 곳이냐 하는 것이다. 「신단 실기」에는 광주 이성산을 위례성이라 하였다.

이성산은 광주군 서부면 초일리에 있다. 산허리에 돌로써 성을 쌓은 흔적이 남아 있고 주춧돌과 기왓장이 쌓여 있으며 옛그릇의 파편이 땅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옛날에 건물이 이곳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설에 의하면 백제왕자 두 사람이 이 산에 거주하였다 한다. 백제 왕자 두 사람은 비류와 온조를 가리키는 것 같고 여기에는 온조만 남고 비류는 미추홀로 간 것으로 보아 아성산이라 한 것 같다. 즉 기록을 보면 비류가 미추홀로부터 위례성에 와서 성이 견고함을 보고 병들어 죽은 후에 부하들이 미추홀에 돌아왔다고 하니 그때 위례성에는 온조, 비류의 부하들이 함께 거주했고 후세에 온조와 비류 다같이 백제 건국계통 인물이므로 이성산(二聖山)이라 한것이 아닌가 한다.

또 위례성산이 점차 와전되어 후에 이성산이 되고 지금은 한강 남방의 서광주 평야에 속해있어 위례성이 있던 곳으로 추축된다.

4) 이성산(二聖山)

이성산은 옛 광주군 서부면 초일리에 있으니 삼복에 돌로써 성을 둘러 쌓은 흔적이 영역히 남아있고 주춧돌과 깨어진 기왓장이 쌓여 있고 무수한 옛 그릇의 파편이 땅속에서 발견되고 있으니 옛날의 건물이 이곳에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전설에 백제왕자 두 사람이 이산에 거주하였다하여 이성산이라 한다하나 분명한 증거가 없고 추측에는 백제왕자 두 사람이 아니라 비류와 온조 두 사람을 가르킨 것이 아닌가 한다. 위례성에는 온조만 있고 비류는 미추홀로 갔었었다. 그러나 고사(古史)에 비류가 미주홀로부터 위례성에 와서 성지(城址)의 견고함을 보고 부끄러워 병들어 죽은 후에 미주홀에 있던 비류의 부하가 모두 위례성에 돌아왔다는 기록을 보면 그때 위례성에는 온조, 비류의 부하들이 함께 거주한것이 분명하고 또 온조와 비류는 백제의 왕자는 아니나 다같이 백제건국 계통의 인물이므로 후세에 백제의 왕자 두 사람이라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성산이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성산이라 부르게 된것은 옛날에 위례성이 있던 산이라하여 위례성산이라 부르던 것이 점차 와전되어 후세에 이성산이라 부르게 된것이 아닌가 한다.

4. 신라시대의 광주

삼국의 하나로서 7세기 중엽 한반도를 처음으로 통일한 왕조이다.

국호는 신라(新羅)·신로(新盧)·사라(斯羅)·서라(徐羅)－서나벌(徐那伐)·서야(徐耶)－서야벌(徐耶伐)·서라(徐羅)－서라벌(徐羅伐) 서벌(徐伐)등은 모두 사로(斯盧) 즉 마을의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라는 삼국사기에 의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5시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원시 부족기

1시조～16흘해왕:(BC. 57～356)사로국〉

○씨족국가 성립기

17대 내물왕～22대 거중왕(356～514)－3국시대

○왕족 확립기

23대 법흥왕～28대 진덕왕(514～654)－3국시대

○왕족 최성기

29대 무열왕～35대 혜공왕(654～780)－통일시대

○왕권 쇠퇴기

37대 선덕왕～56대 경순왕(780～935)－통일시대

※여기서는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중 광주와 관련된 제4기만을 기술한다.

신라가 주체가 되어 민족이 하나로 통합된 시기이다. 제29대 태종 무열왕과 제30대 문무왕 2대에는 당나라의 무력에 힘입어 서기 660년(무열왕 7년～백제 의자왕 20년)에는 백제를 서기 668년(문무왕 8년～고구려 보장왕 27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통일신라의 영토는 서북으로는 대동강 이남 동북으로는

원산, 안변부근 이남으로 확대되었다.

이때에 문무왕이 백제의 실지를 수령하여 서기 664년(문무왕 4년) 남한산성을 개명하여 한산주라 칭하고 서기 670년에 이르러서는 신라의 삼국통일후 최초로 지방행정구역의 폐합을 단행하여 이 지방 일대를 남한산주라고 개칭한것을 경덕왕이 서기 757년에 한주라 칭하고 그밑에 1주 1소경 38군 및 47현을 속관한 것이다.

주치와 소경 그리고 군현의 위치는 광주에 있었다.

여기서 한주(漢洲) 지금의 광주 소속의 28군을 보면 한양(漢陽) 교하(交河) 견성(堅城) 장제(長堤) 율진(栗津) 당온(唐溫) 수성(水城) 장구(獐口) 해구(海口) 송악(松嶽) 개성(開城) 우봉(牛峰) 내소(來蘇) 기천(沂川) 개산(介山) 괴양(槐壤) 백성(白城) 철성(鐵城) 토산(兎山) 부평(富平) 습지(濕地) 중반(重盤) 서암(棲巖) 오관(五關) 영풍(永豊) 취성(取城)등으로 오늘날의 도만큼 광활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백제의 발상지였던 지금의 광주지방은 군현치하에서 신라의 주군현으로 변천되어 갔던 것이다.

5.고려시대의 광주

신라말 동란기에 송악군(지금의 개성)의 호족 왕건(고려태조)은 궁예의 부하로서 활동하다가 뒤에(서기 918년)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

그는 수도를 태봉국(泰封國)의 철원(鐵園)(지금의 철원)으로부터 송악(개성)으로 옮긴 다음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한편 내치외교에 힘썼다.

서기 935년(태조 18년) 신라를 평화적으로 병합하였으며 다음해에 후백제를 멸하여 전국을 통일하였다.

태조는 북방을 개척하고 내정에 힘쓰며 불교를 보호하고 예전 유

족과 토호들을 포섭하여 통치체제를 정비 하였다.

고려조에 이르러 서기 940년(고려 태조23년) 한주를 처음으로 현재의 이름인 광주라고 개칭하였다.

서기 983년(고려 성종2년)에 전국을 12도로 직할할때 광주목을 두어 관내도를 다스리게 하는 동시에 사주 삼현을 이어 영속하였다.

서기 995년(성종 14년)에는 십이절도사를 두고 광주는 봉안군이라 하여 관내도에 귀속하였다.

서기 1012년(고려 헌종 3년) 절도사를 폐하고 안무사를 두었다가 서기 1018년(헌종 9년)에 이르러 팔목을 정치하여 다시 목사를 두었다.

6. 조선 왕조 시대의 광주

근세에 세워진 통일왕조를 이씨조선이라고 한다. 위화도 회군으로 단번에 중앙정계의 실권자가 된 태조 이성계는 정치의 지도권을 장악하여 차츰 고려의 구세력을 몰아내고 드디어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서기 1392년 7월 개경(개성)의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처음에는 급격한 인심의 동요를 막기위해 국호도 그대로 고려라 하였으나 뒤에 곧 조선이라 고쳤으며 인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서울을 한양으로 옮기었다.

태조는 고려때에 큰 폐단이 되었던 불교대신에 유교를 존중하여 이를 정치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삼으니 불교는 점점 쇠퇴하여 천대를 받고 유교는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명나라에 대해서는 사대정책을 써서 국호를 고칠때에도 명나라의 승인을 받았던 일이 있다.

서기 1897년에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왕을 황제라 일컬어 표면으로는 독립국가로서 새 출발을 하는 듯 하였으나

외세에 의존하려는 태도는 여전하였다.

한편 노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한국에서의 모든 이권을 차례로 독점 하였으며 서기 1910년에는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을 체결시킴으로써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조의 한양정도에 따라 서기 1395년(태조4년)에 양광도의 수원부이하 칠개군현과 더불어 광주부는 경기도에 내속되어 좌도에 편입 되었다.

당시 유수가 배치되던 개성및 광주·강화·수원은 경관직으로서 중앙의 직할을 받던 곳으로 지방관제에서는 제외되었다.

※세종때에 진을 두어 여주 목·이천부·양근군·지평·음죽·양지·죽산 및 과천의 제현이 여기 광주 경관직으로서 중앙 관할에 속하였다.

※서기 1956년(세조원년)에는 좌우전후 보례에 따라서 광주는 좌보(左輔)가 되고 우보(右輔) 원주(原州)·전보(前輔) 수원 후보(後輔) 양주와 아울러 경사(京師) 즉 서울을 지키는 근기사진(近畿四鎭)의 하나로 광주를 중요시 하였다.

Ⅲ. 역사의 발자취

1. 남한산성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 연혁

남한산성은 광주군 중부면에 있는 남한산의 산성이다. 이곳은 기원전6년(온조왕 13년)에 백제가 왕도로 정했던 곳이며 한수(漢水) 남쪽에 있어 남한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후 서기371년에 한산(현 서울)에 도읍을 옮겼으나 553년(진흥왕14년)에 신라가 백제의 동북쪽을 뺏은 후부터 신라 영역이 되었고 남한산성을 고쳐서 한산주(漢山州)또는 남한산주(南韓山州)라 칭했다. 983년(고려 성종2년)

에 12목(牧)중의 하나를 이곳에 두었다.

성진(城鎭)으로서는 672년 신라 문무왕 12년에 당병을 막기 위해 지금의 남한산 동봉(東峰)위에 성을 구축하여 야장성(夜長城)또는 일장성(日長城)이라 불렀다. 1595년 선조28년에 산성을 축조하였고 1612년 광해군 13년에 다시 증축을 했다. 1626년 인조4년에 수어사 이서(李曙)에게 명하여 남한산성을 다시 개축하고 수어청을 두어서 중요시했다.

병자호란이후에 봉암외성, 한봉외성, 신남성, 포루, 돈대, 암문(暗門)등을 증축하였고 동, 서, 남의 3문에 문루를 세우고 4방에 장대를 축조하였다. 성벽의 주위가 약 8㎞이다.

남한산성에는 전국의 승려를 관장하는 남한산성 도총섭을 두었는데 승군을 지휘하여 남한산성 수축의 임무를 맡기도 했다. 송월(松月) 벽암(碧巖)스님등이 도총섭을 지냈으며 개원사(開元寺)에 본부를 두었다. 산성이 준공된 후에 승려 370명으로 승군을 조직하여 지켰으며 이 제도는 고종때 까지도 계속되었다.

2) 조정 방어체계와 남한산성

조선조의 중앙 방어체계는 오군영제(五軍營制)였다. 즉 서울 도성에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을 두어서 성안의 경비와 임금의 호위를 담당하게 했고 수도 외곽에는 총융청과 수어청을 두어서 내우외환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남한산성은 이러한 오군영 중에서 수어청이 있던 곳으로서 북한산성 중심의 총융청과 더불어 수도권 방위에 가장 중추적 기능을 맡았던 곳이다.

3) 병자호란 때의 남한산성의 기능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진격 속도는 전광석화 그대로였다. 청나라의 선봉장 마부대와 용골대는 청북방어사 임경업장군이 지키고 있던 의주성과 백마산성을 우회하여 곧바로 도성을 향해서 진격해 왔

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침입을 예견하고 김자점을 도원수로 삼아서 서북쪽에 산성 중심의 방어를 펴고 있었다. 그리하여 의주의 백마산성을 비롯하여 평양의 자모산성, 황주의 정반산성, 평산의 장수산성등을 수축하고 군사의 주력을 그곳에 배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군측은 조선의 이러한 산성을 일체 외면하고 곧바로 도성으로 진격하여 압록강을 넘은지 14일만에 이미 도성외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임금은 뒤늦게 급보에 접하고 급히 강화도 입거를 서둘렀으나 이미 통로가 점령된것을 알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임금을 호위한 제군영의 군사들도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수성에 임하게 되었다. 당시 군사의 배치 현황을 보면 훈련대장 신경전이 중군 이영달과 더불어 훈련도감군을 주축으로 하여 동성 망월대를 지키게 되었고 경기병사 구굉이, 수원부사 구인후를 중군으로 삼아서 남성을 맡았다. 총융사 이서는 이확을 중군으로 삼고 총융군으로 하여금 북성을 지켰다. 이서의 병이 깊게 된 후에는 그 후임을 어영대장인 원두표가 대신했다.

그리고 수어사인 이시백은 이직을 중군으로 삼고 수어군을 거느리고 서성을 맡았다.

조선의 군사는 모두 1만 2천여명이었다. 그밖에도 문무 음관 2백여명 종실과 삼의사(三醫司)가 2백여명 노복등이 3백여명 이었다. 군사들을 위한 양곡은 50일분 정도가 고작이었다.

청나라는 그들이 자랑하는 팔기병의 주력군을 모두 동원하였고 선봉장으로 조선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마부대와 용골대를 기용하였다. 나중에는 청나라 황제 홍타시가 직접 주력군을 이끌고 조선정벌에 가담하기 까지 했다. 적들은 삼전도에 지휘부를 두고 남한산성을 포위한 후에 공략에 나섰다.

청나라는 조선군을 쉽게 괴멸시킬 것으로 여겼으나 남한산성의 산세가 워낙 가파르고 험한데가 산성이 잘 축조되어 있어서 몇차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시일이 천연되면서 적

의 위세에 위축되었던 조선군이 차츰 원기를 회복하여 여러차례의 접전에서 종종 승리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청군은 산성 둘레를 소나무로 목책을 둘러치고 인마의 왕래를 완전히 차단하여 조선군의 양곡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지연작전을 쓰기로 했다. 그런 위에 때때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강화를 받아 들이라는 외교적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조선측은 군사로써 대항하고 또는 강화의 조건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등으로 47일을 버티었다. 그러나 양곡이 얼마 안 남고 땔감이 없어 관청의 뇌옥을 부수고 개원사의 행랑채를 부수어 땔감으로 쓸 지경에 이르렀다. 거기에다 군사들은 극도로 피로하여 사기가 떨어졌고 세자빈을 비롯하여 왕자들과 여러 대신들이 피난했던 강화도의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더 이상 버틸 의욕을 잃게되어 마침내 굴욕적인 강화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임금이 남한산성에 입거해서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동안 구원하러 달려온 근왕군은 충청감사 정제규와 원주 영장 권정길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중도에서 적에게 격파된바 있어 남한산성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도원수 김자점 부원수 신경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감사와 병사들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리저리 도망하기 바빴다.

강화이후에 남한산성의 수어청은 반청운동의 상징적 위치에 있게 된다. 인조임금은 수어사 이시백으로 병조판서를 겸하게 하여 남한산성의 보수와 확충에 힘쓰게 하고 광주목사를 부윤(유수급)으로 승급시켜 수어부사로 삼았다. 따라서 수어사는 판서급의 중신이 맡고 광주부윤이 수어사의 대리가 되어 군영을 관리하는 체제가 되면서 수어사는 정치를 움직이는 권력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다.

4) 남한산성의 역사적 위상(位相)

남한산성의 역사적 위상은 우리 민족 수난의 시기에 외적의 침입

으로부터 나라의 방위를 공고히 하는데 큰 역활을 감당하였다는 점과 나라안의 내치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권력의 이동과정에서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도 항상 그 중심축이 되어왔다는 점을 들게 된다. 남한산성에 근거를 둔 수어청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향배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또 백성들의 배청의식을 심화시키고 민족의 정기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남한산성의 보수 개축에 힘을 기울여 민족주체 의식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도 남한산성은 매우 유효하게 활용되었었다.

이런 점에서 남한산성은 재평가 해야 될것이다. 흔히 병자호란을 패배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데 당시의 군세와 힘의 역학관계로 보아서 47일간의 남한산성 수성은 단순한 패배이상의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성이 포위되어 양곡이 거의 바닥 날 즈음에까지 항거했던 것이다. 즉 병자호란은 일시적으로 보면 힘에 의한 패배의 역사이지만 그러한 역사관은 식민지 사관(史觀)의 잔재일 수 있음을 유의하게 된다. 명나라를 정복한 청나라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만주족은 역사속에서 소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병자호란의 피배속에서 우리의 민족정기는 더욱 신장되었다. 그런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의 절망을 딛고 더욱 빛나는 문화전통을 창출해 온 그 민족정신은 마땅히 찬양되어야 할 것이다. 곧 힘의 패배를 정신적 승리의 역사로 치환시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남한산성에는 삼학사의 영혼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한 현절사가 있다. 또한 무명의 의승군이 집결해 있던 개원사, 장경사, 망월사, 국청사등의 사찰이 있다. 이러한 유적들을 통하여 우리는 당대의 선비정신이 무엇이고 또한 호국불교의 위대한 이상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살펴서 과거의 국민정신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도면 3 온산공단〉

2. 실학사상(實學思想)의 진원지(震源地) 광주

1) 근기학파(近畿學派) 형성파 광주

조선후기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종래의 신분적 지배체제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직분적 사회구성 위에 기능하고 있던 주자학(朱子學) 일변도의 사상체계에 대한 일대 반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17·18세기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새로운 학풍을 우리는 흔히 실학(實學)이란 이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실학'이란 용어가 지닌 여러가지 어의(語義)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선 후기 사회를 표상하는 사상의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실학은 조선왕조 후기의 정치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因子)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후기사회를 지배하는 실학의 지도적 이론가들이 광주에서 태어났거나 광주지역과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학에 대하여 자세한 서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자학을 지배체제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왕조가 그 자생적 모순과 외침으로 인하여 이미 17세기에 접어 들면서부터는 그 해체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현상과 관련하여 이것은 조선사회 발전의 새로운 추진에너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 실학이 한민족의 자주적 인식과정에 있어 국학적 의미도 포함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조선조 실학을 이해하는 인식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발생시킨 전제로서 조선중기사회의 정치·경제·사회등의 상황과 조선후기사회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17·8세기, 영조·정조시대부터 대두된 실학(實學)의 대표적 이론가들 가운데 광주와 관련있는 학자들을 살피기로 한다. 광주군 안산(安山) 첨성촌(瞻星村)에 은거하던 성호(星湖) 이익(李瀷)은 경세치용(經世致用)의 근기학파(近畿學派)를 주도했는데, 그야말로 실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성호의 문하에서 수학한 순암(順菴) 안정복(安

鼎福) 권철신(權哲身) 홍유한(洪有漢)등이 모두 광주 사람들이었고, 또 안정복도 정약전(丁若銓)·정약용(丁若鏞)을 가르친 사람이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들어온 신사상인 천주교, 즉 서학(西學)도 광주와는 깊은 인연이 있다. 광주에서도 특히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시 국왕이 피난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천주교도들이 박해를 당한 순교지였다. 즉 1839년과 1866년 사이에 350명이 넘는 천주교도가 박해를 받고 사형을 당한 곳이 남한산성의 동문 언저리에 있던 형터였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용산구에 있는 새남터와 마포구의 절두산과 함께 한국천주교도의 순교지이다.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앵자봉 산기슭에 있었던 천진암은(天眞庵)은 우리나라 천주교의 선구자인 이벽(李檗)이 권철신·권일신 형제와 정약전 정약용 형제, 그리고 이승훈, 김원성, 이용억, 권상학 등의 젊은 실학자들에게 천주교교리를 가르쳤던 곳이다.

또 동부면 구산리는 유방제, 모방 등의 초기 서양신부들이 포교사업을 벌일 준비를 하며 지냈던 곳이다. 그런데 광주군이 이웃인 양평군과 함께 천주교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까닭은 이곳에서 남인계(南人系)실학자, 그중에서도 근기학파의 중심이 되는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광주는 새로운 학풍, 신사상(新思想)의 진원지(震源地)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근기학파의 개조(開祖) 이익을 비롯한 안정복·정약용 등과 같은 경세치용계(經世致用系) 실학자들 이외에도, 학문으로서의 서학(西學), 다시 말해서 천주학이 광주지방의 남인계(南人系)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학문연구과 함께 포교(布敎)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지방에는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聖地) 천진암(天眞庵)을 중심으로 광암(曠庵) 이벽(李檗)과 같은 서학 내지 천주교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광주지방의 실학자들

① 성호 이익(星湖 李瀷) 1681~1763

18세기 중엽 영조(英祖)때 남인계(南人系)의 실학자로, 자는 자신(自新), 호는 성호(星湖), 문관은 여주(驪州)이다. 그는 숙종7년(1681) 부친 이하진(李夏鎭)의 유배지 평안도 운산(雲山)에서 출생하여 2세 때부터 광주군 안산군(安山郡) 첨성촌(瞻星村)으로 돌아왔다.

숙종31년(1705)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응시했으나 낙방, 이듬해 형 잠(潛)이 당쟁으로 회생되자 벼슬을 단념하고 첨성촌에 은거하며 후진들에 대한 강학(講學)과 저술에 주력하며 향리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는 학문적으로 조선후기 실학의 개조(開祖)로 평가되는 유형원(柳馨遠)의 학풍을 계승하여 중농주의적(重農主義的)인 경세치용계(經世致用系)의 학문을 본격적인 단계로 진흥시켜 흔히 실학의 중조(重朝)로 일컬어진다. 47세 때인 영조 3년 학행(學行)으로 추천되어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영조 39년(1763) 노인직(老人職)으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어 이해에 별세하였다.

성호는 일찍부터 부친이 남긴 많은 장서를 토대로 유교경전과 정주학(程朱學)을 연구하고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글을 탐독하였다. 그는 학문 연구에 있어서 실증적·비판적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과 모든 학문은 실제 사회에 유용한 것(經世致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쟁(黨爭)의 발생은 이해(利害)의 상반에서 오는 것이라 분석하고 제한된 일정한 직제(職制)에 비해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많은 양반 계층이 과거를 통해 등용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당쟁을 야기·조성한 것이라 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양반도 산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사농합일(士農合一)을 주장했고, 아울러 과거제도의 혁신적 개편을 제시하였다. 또한 토지경작을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보고 대토지의 점유(占有)를 억제하는 한전법(限田

法)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서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유학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편견없이 전진적인 관점에서 접급하려 했으며 역사학·지리학·의학 등 분야에 있어서도 서양의 새로은 지식을 과감히 받아들여 연구에 참고케 하였다. 이러한 그의 폭넓은 학문은 그후 안정복(安鼎福)·이가환(李家煥)·이중환(李重煥)등에게 계승되어, 조선후기 실학의 대표적 유파인 근기학파(近畿學派)를 형성케 하였다.

② 순암 안정복(順菴 安鼎福) 1712~1791



안정복선생 학문 연구실(麗澤齊)

조선 후기 영조·정조 때의 실학자로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菴)·상헌(상軒)·한산병은(漢山病隱)·우이자(虞夷子), 본관은 광주(廣州), 울산부사 서우(瑞羽)의 손자이며 종호조참판 극(極)의 아들이다.

숙종 38년(1712) 충북 제천 현(堤川 縣) 유원(楡院)에서 태어나 조부의 임지를 따라 한성(漢城)·울산(蔚山)·무주(茂朱)등지에서 살다가, 27세때 광주 경안면(慶安面) 덕곡(중대리)에 서재를 짓고 이사한 뒤 이곳에서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는 이익의 문하에 수학하여 스승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켜 조선후기 실학 내지 근기학파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영조 25년(1749) 천거로 후릉참봉(厚陵參奉)이 되었으나 나가지 않다가 만녕전참봉(萬寧殿參奉)이 된 뒤 1751년 의영고봉사(義盈庫

奉事), 이듬해 정릉직장(靖陵直腸)이 되었다. 이어 귀후서별제(歸厚署別提)·감찰(監察)등을 지내고 사직했다. 그뒤 1765년 제용감주부(濟用監主簿)·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고, 영조 48년(1772) 세자익위사 익찬(世子翊衛司翊贊)·세손사부(世孫師傅), 다음해 세자익위사 위솔(衛率)등을 역임하고 세손(뒤의 正祖)을 보도(輔導)하였다. 1775년 희인현감(懷仁縣監)·익찬(翊贊)을 지내고 병으로 사퇴했으나 이듬해 목천현감(木川縣監)이 되어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정조 7년(1783) 돈녕부주부(敦寧府主簿)가 되고, 정조 13년(1789)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라 광성군(廣成君)에 봉해졌다.

순암은 일찍부터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성리학을 사숙(私塾)했고, 성호 이익의 문하에 수학하여 스승의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진력했다. 그는 경세치용·이용후생의 실학을 깊이 연구했고, 특히 역사학 연구에 전념하여 《동사강목(東史綱目)》《열조통기(列祖通記)》《광주지(廣州志)》등의 저술을 남겼다. 그의 역사학 연구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입장에서 종래까지 잘못된 역사지리학을 세밀히 고증 비판하여 역사학을 전문적이고 본격적으로 끌어 올리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는 스승인 성호(星湖)문학의 다른 학파들과는 달리 천주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당시 학자들의 천주교 귀의를 경고하였다. 저서로는 《순암집(順庵集)》《상헌수필》이 있고, 편서로는 《열조통기》《임관정요(臨官政要)》《잡괘설(雜卦說)》《희현록(希賢錄)》《성호사설유편(星湖私說類編)》《가례집해(家禮集解)》《홍범연의 (洪範演義)》등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저술이 광주 경안 덕곡에서 집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조선후기 정조 때의 실학자로, 자는 미용(美鏞)·송보(頌甫), 초자(初子)는 귀농(歸農), 호는 다산(茶山)·삼미(三眉)·여유당(與猶堂)·사암(俟菴), 본관은 나주(羅州), 진주목사 재원(載遠)의 아들, 이승

훈(李承薰)의 처남이다.

그는 영조 38년(1762) 광주 초부면(草阜面) 마현리(馬峴里)(오늘의 남양주군 조안면 능내리)에서 정재원의 3남으로 태어나, 정조 1년(1777) 이익(李瀷)의 유고(遺稿)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아 민생을 위한 경세(經世)의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이벽(李檗)에게 서학을 배웠다. 정조 13년(1789)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뒤 중앙정계에 나아가 뛰어난 학문과 재능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그후 검열(檢閱)이 되었으나 천주교인이라 하여 남인(南人)인 공서파(攻西派)의 탄핵으로 해미(海美)에 10일간 유배된 바 있다. 지평(地平)을 거쳐 정조16년 수찬(修撰)으로서 수원성(水原城)의 축성을 위해 《도서집성(圖書集成)》《기기도설(機器圖說)》을 참고하여 기중가도설(起重架圖設)을 작성해 바침으로써 국고 4만냥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정조 18년(1794) 경기도 암행어사, 이듬해 병조참의가 되어 왕명으로 이만수(李晩秀)·이가환(李家煥)등과 함께 수원성의 규모와 여러제도를 적은 《화성정리통고(華城整理通告)》를 편찬했다. 그뒤 연천현감(漣川縣監)·동부승지(同副承旨)·곡산부사(谷山府使)·형조참의 등을 지내며 규장각(奎章閣)의 편찬사업에 유득고(柳得鼓)·박제가(朴齊家)등과 함께 참여했다.

그러나 서학 문제로 공서파로부터 탄핵을 받아 정조 23년(1799) 형조참의를 끝으로 관계를 떠났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순조(純祖) 1년(1801) 신유박해(辛酉迫害)때 장기로 귀양갔다가 다시 11월 강진(康津)으로 이배(移配)되어 57세 때인 순조 18년(1881) 본가로 돌아오기까지 18년간 귀양살이를 하였다.

다산은 이후 18년동안 향리 마현(馬峴)에서 저술생활로 노년을 보내다가 헌종(憲宗) 2년(1836)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융희(隆熙) 4년(1910) 규장각제학(直提學)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도(文度) 묘는 현재 남양주군 조안면(鳥安面)능내리에 위치해 있다.

다산의 학문은 아주 넓어 성리학(性理學)으로부터 정치·경제·군사·법률·문학·수학·역학(力學)·생리학·의학·천문·지리·역사(役事) 등 거의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으며 5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인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정다산전서에 그의 박학(博學)함이 담겨 있다. 특히 정치·경제·경제사상에서 그의 탁월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의 정치기구와 국가재정의 재정비를 위한 제도개혁을 논한 경세유표(經世遺表)와 지방행정을 다룬 목민심서(牧民心書)는 그의 개혁사상의 정수라 할 것이다.

3. 한말 의병운동(韓末 義兵活動)과 광주

1894년 갑오 동학 농민 항쟁이 부패무능한 봉건정부의 탄압과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참전으로 실패한 이후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려는 일제침략에 대응한 가장 적극적인 투쟁은 한말의 무장의병 투쟁이였다. 의병운동은 제1단계 을미의병(乙未義兵:1895~1896) 제2단계 병오의병(丙午義兵:1905~1907) 제3단계 정미의병(丁未義兵:1907~1909)으로 나눌 수 있다. 첫단계인 을미의병운동의 첫 봉화(峰火)는 1896년 1월부터 광주를 비롯한 여주·이천·용인·과천·안산·남양·수원·안성·죽산·포천·양근·지평·양주·연천등 경기도 전역에서 전개 되었으며 특히 광주와 여주·이천지방의 의병활동이 치열하였다. 이들은 광주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일전을 수행 하기도 했다.

친일정부의 단발령에 크게 분격한 애국지사 김하락·조성학·구연영·김태원·신룡희등은 서울에서 이천으로 와서 화포군도령장(火砲軍 都領將) 방춘식과 상의하여 무기공급과 병력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 300여명과 화포군(火砲軍) 300여명을 끌어 모아 이천에서 의병부대를 결성함.

1) 광주의병의 남한산성 전투

1896년 1월 광주부근의 백현·장항(魄峴·障項)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후 이현(梨峴)전투에서는 장비가 약하고 강추위 때문에 패전하여 의병진은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규합한 의병연합병력은 2,000여명에 달해 박준영(朴準英)을 창의대장(倡義大將)으로 하여 2월28일경에 광주의 남한산성으로 의병부대를 이동하게 되었다. 성내에는 다수의 무기와 많은 군량이 저장되어 있었고 완전한 형태의 성벽과 험준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방어전을 펼치는데 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친일정부에서는 서울의 친위대와 강화 주둔병력을 출동시켜 산성을 포위하고 여러차례 공격을 시도했으나 불리한 위치를 차지한 관군은 산성을 함락시킬 수 없게 되어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되자 포로(捕虜)로 잡은 의병 좌익장 김귀성(左翼將 金貴城)을 은밀히 내세워 의병진의 이간공작(離間工作)을 획책한데 말려들어 대장 박준영의 배신으로 주둔 20여일만에 산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2) 광주지방의 1907~1909년 의병활동

초기(乙未義兵)에 이어 제2단계의 의병운동은 노일전쟁(露日戰爭)후 일제의 강요에 의한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계기로, 조약체결 2개월 전 원용팔 의병부대(元容八 義兵部隊)가 원주에서 기병(起兵)한 뒤 각지에서 의병투쟁이 재연(再燃)되니 흔히 이를 편의상 병오의병(丙午義兵)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 경기지역에서는 별로 두드러진 활동이 없었으나, 충남 정산에서 기병한 전참판 민종식(閔宗植)의병부대는 홍주성(洪州城)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고 태인(泰人)에서 기병한 유학자 최익현(崔益鉉)은 제자 임병찬(林炳瓚)과 함께 정읍·곡성·순창에서 활동하였다. 한편 경상도 영해(寧海)에서 기병한 평민출신의 병장 신돌석(申乭石)은 3천여명의 의병부대를 지휘하며 평해·울진·영해 등지

에서 큰 전과를 올린바 있고, 영천의 정용기(鄭鏞基)의병부대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이 시기의 의병운동은 대중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가운데 신돌석과 같은 평민의병장이 출현하여 독자적으로 부대를 지휘했고, 집중과 분산에 의한 게릴라 무장활동으로 큰 전과를 올렸던 것이다.

한편 제3단계의 의병은 고종(高宗)의 강제양위(強制讓位)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전쟁이 전민족적 항쟁으로 발전하여 한말 의병운동 정점을 실현하였다. 정미의병(丁未義兵)이라 불리는 이 시기의 항일의병은 1907년 8월 군대해산 후부터 1909년 9월 일제의 소위 남한대토벌까지 치열하게 전개 되었다.

丁未義兵은 경험있고 훈련된 정규군인이 참여하고 근대적 신식무기로 무장되어, 의병전술과 타격력이 강화되어 완강한 항일전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해산군인이 의병부대의 실질적 지휘관이 되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정미의병은 그 신분 구성면에 유생(儒生)·군인·포군(砲軍)·광부등 각계각층을 망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의병부대들은 전국 각지에서 주로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삼아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고 철도와 전화선을 파괴하는 등 맹렬한 항일 무장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이 시기 1907. 8~1909년 사이에 광주지방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서 활동한 주요의병장으로 이익삼(李益三)·서가(徐哥)·윤전·임문순(林文淳)·권동설(權東說)·성주사(成主事)·고재석(高在奭)·이근풍(李根豊)등이 특히 크게 활약하였다.

한편 당시 광주지방과 이에 연접한 인근지역에서의 의병활동의 가지가지를 당시 신문에서 종합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1907. 9. 19 의병 약 400여명 장호원에서 접전
- ○ 1907. 9. 29 김봉기(金鳳基)의병부대 약 400명 여주에서 접전
- ○ 1908. 1. 7 의병 약 20명 광주 동남방 경안면에서 교전
- ○ 1908. 1. 16 의병 약 40명 여주 동북방 약 35리에서 공방전

○ 1908. 2. 7 의병 약 40명 지평서남방 약30리 지점에서 공방전
○ 1908. 6. 9 의병 약 20명 이천장에서 교전
○ 1908. 6. 27 의병 약 20명 광주 남방 20리 지점에서 교전
○ 1908. 7. 8 의병 약 25명 이천 북방 40리 지점에서 교전

4. 광주지방의 독립운동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3·1독립운동을 일으킨 지방은 개성을 비롯하여 수원·고양·인천·양평·평택·안성·파주·가평 등지였으며 대체로 3월 하순에서 4월 초에 이르기까지 도내 20여군 거의 모두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경기도의 만세시위는 대체로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에 이른 기간에 걸쳐 끈질지게 강력히 전개했으며, 수원군(현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의 대학살이 단적으로 대변해 주듯이 3·1운동 전기간에 있어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3·1운동의 확대과정을 보면, 3월 초순은 서울에서 그 운동의 불길이 번져가던 파급기(波及期)요,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까지는 각 지에서 독립운동의 불길이 재연하던 절정기에서 하순의 시기는 일본 경찰 및 헌병의 무자비한 검거와 학살로 인하여 지하운동으로 숨어들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군의 경우도 만세운동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시기 곧 3월 중순에서 4월 상순에 걸쳐, 각 면을 중심으로 민족의식이 투철한 선각자들의 향도(向導)에 따라 끊임없이 전개했음은 다음의 운동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 1919년 3월 12일

광주군 만세시위의 첫 봉화는 실촌면 만선리 거주의 이병승(李秉昇)과, 같은 면인 봉현리 거주의 문홍규(文鴻圭)두 애국지사의 주

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병승은 고종(高宗)의 인산(因山)장례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가 3월 1일 독립만세시위 현장에서 시위학생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귀향한 즉시 향리 실촌면에서 의거할 것을 결심하고 당시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있던 봉현리의 문홍규(文鴻圭)를 찾아가서, 독립선언서를 보인 후 거사(擧事)할 것을 제의한바 문홍규 또한 즉석에서 응락, 의기투합 하였다.

그들은 문홍규집에서 선언문과 격려문을 작성하여 등사한 뒤, 비밀리에 격려문을 배포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데 동분서주하였다. 당시 격려문의 내용은 「면민이여, 조국 광복운동에 빠짐없이 총궐기하자」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선리의 구장 오여첨(吳呂添)을 포섭하고 거사일을 3월 12일, 집합 장소는 실촌면소 앞 공터로 지정하였다.

마침내 3월 12일 이병승은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치를 높이 들고 만선리 주민들을 인솔하고 집합장소로 향하는 도중, 미리 동원의 책임을 맡은 오여첨의 활동으로 군중들이 많이 모여들어 면사무소 앞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수백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병승은 곧 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취지를 일장 설유한 다음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하니, 군중들도 모두 호응, 만세소리가 일대를 진동하였다.

군중이 의기양양하게 곤지암을 향하는 도중 별안간 총소리가 나고 헌병들이 들이 닥쳤다.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군중들은 적수공권이었으므로 황급히 흩어져 산속으로 피신하였다. 헌병들은 도망치는 군중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결과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한편 주동자의 한 사람인 이병승은 가까스로 집에 도착하여 전후사정을 부친에게 고하고 강원도 방면으로 피신하였다. 헌병들은 주동자 색출에 광분하여 문홍규·오여첨등을 체포하여 갖은 악형을 가

하는 한편 매일 같이 이병승의 부모와 처자를 고문하듯 괴롭혔다.

문홍규는 선언문·격려문 등의 등사 사실로 6개월간 미결로 있다가 부형의 주선으로 태형(笞刑)을 받고 방면되었으나 오여청은 당시 구장으로 인력 동원의 연락책을 맡았다고 하여 서대문감옥에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강원도로 피신했던 이병승은 그 뒤 만주로 건너가 노동생활을 하며 온갖 고초를 겪다가 20년 뒤 부친의 권유로 귀국했으나 일경은 요시찰 인물로 지목하여 감시를 받다가 해방을 맞았다.

2) 3월 19일

경안면 소재지에 약 1천명의 주민들이 모여들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급히 출동한 헌병과 경찰병력에 의하며 무차별 총격을 받아, 5명이 사망하고 5명의 상해자를 냈으며 77명이 검거될 만큼 광주 만세시위운동 중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3) 3월 26일 밤부터 광주군 오포면, 용인군 일대에 봉화가 올려지고 여러곳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오포면 추자리에 사는 정제신(鄭濟莘)은 같은 면 고산리에서 마을 사람 4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우리나라가 독립되었다고 기뻐하였다.

4) 이날 경안면에서는 천변에 수천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으며, 이날 시위로 사망 5명, 상해 10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5) 이날 남한산성에서는 봉화가 올려지는 한편, 판교에서는 수백명 군중이 돌마면·낙생면장 남태희(南台熙)를 선두로 독립만세를 부르며 천도교구로 향할 때, 일본인 헌병 마쓰시마(松島)도 함께 만세를 부르고 그 부인도 동정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6) 이날 언주면 내곡리의 천도교 전교실에는 수백명의 주민이 집합하여 만세를 불렀고, 중부면·산성리의 주민 200여명도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7) 3월 28일

① 오포면 추자리의 정제신(鄭濟莘)은 27일 시위에 이어 28일에도 마을 사람 40여명을 인솔하고 오포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정제신은 계속하여 주민들을 이끌고 경안면 경안리의 광주군청 앞에까지 가서 만세를 불렀다.

오포면 양벌리의 유면영(柳冕永)은 3월 28일 아침, 오포면 사무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는데, 당시 면사무소 앞에는 600여명의 군중이 운집해 있었다. 이때 유면영은 군중 앞에서 독립시위의 당위성에 대한 일장 연설을 하고, 광주군청으로 가서 시위할 것을 역설, 군중들을 이끌고 경안면으로 향하였다.

② 오포면 문형리에서는 28일 밤중에 김인택(金仁澤)·임무경(林武京)등이 선두에 나서 마을 사람 30여명과 함께 뒷동산에 올라가 횃불을 올리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오후 2시경 주민들을 인솔하고 광주군청에 모였는데, 각 면에서 모인 군중의 수가 1천명, 또는 2천명을 헤아릴 만큼 그 기세가 대단하였다. 광주 각 면에서 모인 군중들은 사기가 고조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경안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위행진을 계속하였다.

한편 이날 시위군중의 일대가 군청 안으로 들어가서 군수에게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를 것을 요구하자, 일본인 군청직원 아오야마가(青山) 엽총을 쏘아, 이재복(李載福)이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광주지방은 지리적으로 산이 많고 또 각지로 통하는 도로가 많아서, 3월 상순~4월 상순에 걸쳐 끊임없이 만세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과 헌병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엄중한 경계를 폈다. 기독교

와 천주교의 종교단체, 학생과 농민들이 운동의 핵심역할을 했는데, 특히 이곳 천도교구장 한순회(韓順會)는 이천·여주·원주·충북 등지에 연락책임을 맡고 크게 활약하였다. 그는 때때로 서울을 왕래하는 한편 독립운동 소요경비를 모금하여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수감된 유가족을 돕고 운동자금에 쓰도록 중앙에 기부하기도 하였다.

3·1운동 기간중 광주는 매우 치열한 양상을 보였으며 매일 밤 산위에서 봉화를 올리며 만세를 불렀는데, 강 건너 서울에까지 그 함성이 들릴 정도였다. 특히 서울과 광주는 지리적으로 연접한 지역이어서, 낮이면 서울 시내로 들어와 만세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경찰은 엄중 수사했으나 매일 계속하는 형편이어서 경찰과 헌병은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와져 만세시위의 진압에 있어서 매우 거칠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으며, 체포된 시위자에 대해서 고문과 학대 등 갖은 악형이 다 가해졌다.